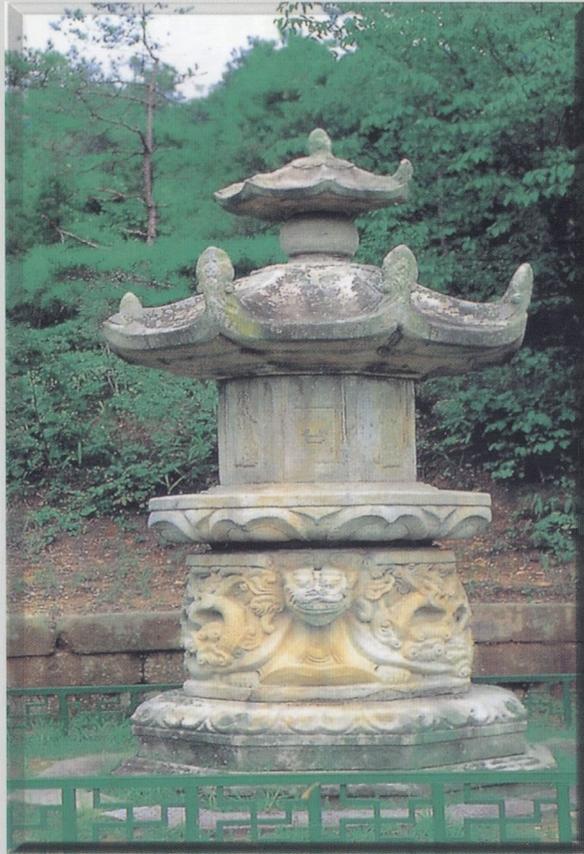


제9호

2001.

# 驪州文化



여주문학원

여

백

2001.

제 9 호

# 驪州文化

驪州文化院

여

백

## 문예중흥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 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 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年 10月 20日

# 여주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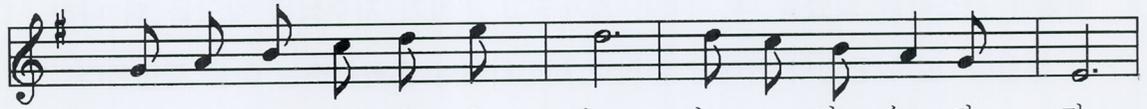
유 달 영 작사  
김 동 진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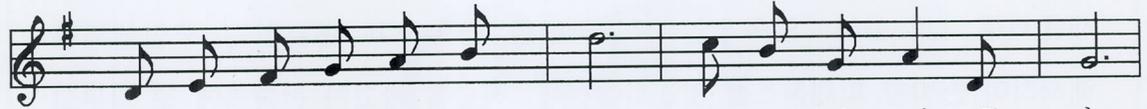
봉 마 다 푸 른 솔 에 싱 싱 히 어 ~ 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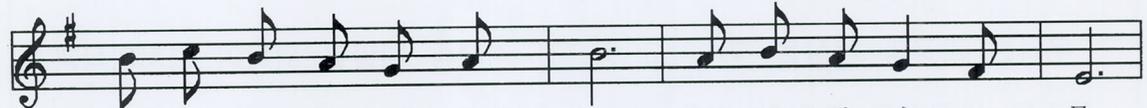
북 별 의 칼 을 갈 던 우 람 한 뜻 ~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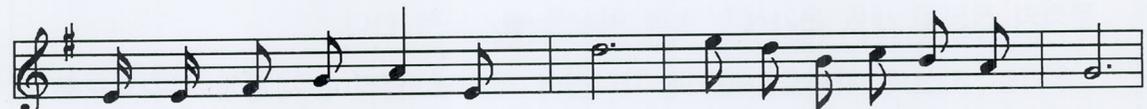
정 음 을 지 어 펴 신 어 - 진 슬 기 가



봄 하 늘 태 양 으 로 우 - 린 기 른 다



굽 이 쳐 흘 러 가 는 무 궁 한 강 - 물



강 물 처 럼 무 궁 한 여 주 의 마 ... 음

2. 명화에 그림같은 여주 팔경에  
포은도 찾아와서 시를 읊었네  
역사에 피고 진 허다한 인걸  
유서깊은 고적마다 신운이돈다

3. 맑은강 넓은 들에 검은 멧부리  
흥겨운 농부가는 메아리 친다  
천마대 살아 나갈 우리 복지를  
자유의 깃발아래 이룩해 가자

# 여주문화원 연혁

## ◆설립배경

우리나라에서 문화원이 처음 생긴 것은 1950년대 초기로 복지관, 국민문화원, 공보원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지들의 지원과 원장의 사재로 운영되어 왔으며 1962년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설립되던 해에 76개소의 문화원이 설립되어 증가추세에 있었음.

## ◆설립계기

1967년초에 [여음회]란 모임에서 설립 논의가 있었고 동년 12년 여주복지관에서 문화원 설립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             |  |
|-------------|--|
| 1967. 5.    | 여주읍 홍문리 15 여광기술학원내 비법인 세종문화원 사무실을 개설함. 박운한 학원장 무상임대)       |
| 1968. 1.    | 여주문화원으로 명칭을 개정   |
| 1969. 2. 25 | 발기인 총회(발기인 : 김운선, 박운한, 정춘식, 안금식, 임창선, 감사 : 최지복, 이영규)       |
| 1969. 4. 11 | 창립총회 정관개정  |
| 1969. 5. 14 | 이사회 의 개최(원장 : 안금식, 이사장 : 김운선)                              |
| 1970. 2. 26 |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설립허가(문화공보부장관)                                   |
| 1970. 4. 27 | 법인설립등기   |
| 1974. 6. 14 | 2대원장 감효정 선출 (이사장 : 안금식)                                    |
| 1981. 6. 23 | 3대원장 김덕배 선출 (이사장 : 안금식)                                    |
| 1981. 6. 23 | 정관개정   |
| 1981. 6. 23 | 사무실이전(중앙감리교회 별관)   |
| 1982. 2. 26 | 4대원장 안금식 선출 (이사장 : 이춘우, 박광식)                               |
| 1982. 10. 9 | 경기도주최 세종문화큰잔치를 여주문화원 주최행사로 인수 (강변봉화, 해촌낙화, 불꽃띄우기, 민속가두행렬등) |

1982. 12. 황여문화 창간 제9호까지 발간(90. 12)
1984. 1 가남본두리 낙화놀이 발굴(정월 대보름 낙화놀이 체계적 시연 유도 매년 음력 1월16일 시연)
1984. 5. 15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 주관  
(시조백일장, 국악인 초청공연등)
1985. 11. 원부리 열 담교놀이 시연지도(매년 정월대보름 시연)
1986. 1. 31 사무실 이전 (여주읍 흥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86. 2. 7 정관개정(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6. 5. 15 세종벽담 문화상 제정
1986. 7. 마래리 거북놀이 발굴 시연
1986. 12. 20 여강문화 창간호 발간(72페이지)  
계속 6호까지 발간 (90. 12. 20)
1987. 10.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대통령상 수상
1988. 2. 29 여주문화예술코너 개관(여주읍 하리 15블럭 9롯데)
1991. 8. 17 원장 직무대리 황응구 선출
1991. 12. 30 사례집략 발간
1992. 4. 6 원장 직무대리 박근출 선출
1992. 5. 6 시범문화원 지정(문화부장관)
1992. 11. 28 원장 원중재 선출
1992. 11. 28 정관개정 (이사장 규정 삭제)  
1992. 12. 22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1993. 3. 5 여주문화사랑방 개설  
(여주읍 흥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93. 4. 9 문화원 처무규정 제정  
(직제, 복무, 인사, 보수, 여비,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1993. 12. 30 황여춘추(제1호) 창간

1994. 7. 29	지방문화원진흥법 (94.1.7. 법률 4718호) 공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정관 변경
1994. 12. 31	황여춘추 (제2호) 발간
1994. 12. 31	여흥문화재대관 발간
1995. 8. 27	원장 조무호 선출 (95. 10. 5 승인. 95. 10. 23 등기)
1995. 11. 28	정관개정(대의원제 신설) 96. 2.29 문체부장관 허가
1996. 1. 12	사무실 이전 (북내면 천송2리 545-1 청소년수련실)
1996. 2. 16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개정 (사용료 변경)
1996. 2. 28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8호), 회비규정 제정(규정 제9호)
1996. 5. 15	세종대왕 탄신 제599돌 승모제전을 제7회 도자기축제와 병합 추진하여 문화행사를 크게 확대 26개 문화행사 거행 (전시회 4건, 민속놀이 5건, 가무극 8건등 기타 9건)
1996. 10. 9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1996. 12. 31	여주문화(3호) 발간
1996. 12. 31	지명유래집 발간
1997. 5. 15	세종대왕탄신 제600돌 기념행사
1997. 10. 9	제29회 세종문화큰잔치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백일장
1997. 12. 31	여주문화(4호) 발간
1998. 10. 9	제30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제2회 경기도 학생 백일장 대회
1998. 10. 9	'왜, 다시 세종대왕인가' 발간
1998. 12. 24	세종대왕 달력 발행
1998. 12. 31	금사면지 발간
1998. 12. 31	여주문화(5호) 발간
1999. 3. 18	원장 한만규 선출

- |              |  |
|--------------|--|
| 1999. 5. 14  | 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
| 1999. 6. 8   | 문화원사무실 군민회관으로 이전   |
| 1999. 10. 9  | 제31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 백일장                                      |
| 1999. 12. 31 | 여주문화(6호) 발간  |
| 2000. 4. 18  |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10억원)                            |
| 2000. 5. 25  | 여주문화 편집위원회 구성  |
| 2000. 6. 21  | 문화원창립 기념일 제정 (4월27일 법인설립등기일)                               |
| 2000. 6. 30  | 여주문화(7호) 발간  |
| 2000. 6. 30  | 조선왕조실록에서 모은 여주사료집( I ) 발간                                  |
| 2000. 7. 12  | 명성황후 탄신일을 천문역학기관에 조회하여 음력 9월25일<br>탄신일을 양력 11월17일로 환산 확정함. |
| 2000. 11. 17 | 명성황후 탄신 제149주년 송모제전  |
| 2000. 12. 30 | 문화유적 자료집 발간  |
| 2000. 12. 30 | 여주문화 (8호) 발간   |
| 2001. 4. 27  | 여주문화원 창립 31주년 기념 및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

# 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2월 27일 정기총회



4월 20일 ~21일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 연수 (남한강 일성콘도)



**4월 27일 문화원 창립 제 31주년 기념식**



**6월 13일 문화유적답사(오죽헌, 선교장, 참소리박물관, 정동진)**

# 문화원 창립 제31주년 기념행사 이모저모



# 21세기 여주군민과 함께 할 심볼마크와 캐릭터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여주군**  
YEOJU-GUN

초록 대지의 안정된 기반위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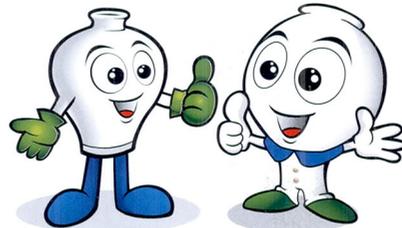
성군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지어퍼신 성군 세종대왕님을 모  
신 고장으로 송고한 명성을 지구촌 시대에 관  
광여주 홍보와 연계하기 위하여 캐릭터 설정



미돌이

여주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쌀을 미래형으로 귀엽게  
형상화 함은 물론, 파랑과 초록을 사용하여  
청정지역의 무공해 쌀임을 더욱 부각시킴



청돌이]와 백돌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도예문화의 메카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자기를 친근하고 해맑  
은 미소로 의인화하여 홍보캐릭터로 활용

## • 차 례 •

◆ 문예증흥선언 .....	3
◆ 여주의 노래 .....	4
◆ 여주문화원 연혁 .....	5
◆ 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	9
◆ 문화원 창립 제31주년기념 행사 이모저모 .....	10
◆ 여주군캐릭터 .....	12
◆ 발간사 / 여주문화원장 한만규 .....	16
◆ 축간사 / 여주군수 박용국 .....	18
◆ 축간사 / 여주군 의회의장 신승균 .....	20

## • 논 단

◇ 체면(體面)의 철학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장성구박사 .....	24
◇ 마음속에서 되뇌는 「여주팔경」 전 여주군청 지역경제과장 / 조대현 .....	27

## • 향토조명

◇ 梅山書院 / 전 원장 임원식 .....	30
-------------------------	----

## • 유적지탐방

◇ 파사성 1차 발굴조사 자료 / 편집부 .....	36
------------------------------	----

## • 고정을 빛낸 인물

- ◇ 고려 민중의 시인 / 이규보 ..... 60
- ◇ 한국 초대 소설가협회장 / 유주현 ..... 63
- ◇ 여주출생 독립운동가 / 김용식 ..... 64

## • 내고장 전설

- ◇ 마암의 전설 ..... 66
- ◇ 한새울과 소슬묘 ..... 67

## • 전통민속놀이

- ◇ 담교놀이 ..... 70

## • 향토문예

### ◀ 시 ▶

- ◇ 신록사에서 / 원용문 ..... 78
- ◇ 세월이가는 소리 / 웅곡 김호정 ..... 79
- ◇ 장진호반 설원에 지다 / 양암 조헌 ..... 80
- ◇ 시골집 / 박광태 ..... 81

◇ 낙화암 / 김흥렬 .....	82
◇ 남과북 뭉치자 / 이일섭 .....	83
◇ 가면극 / 정기명 .....	84
◇ 산속의 소 / 강태희 .....	85
◇ 회상 / 홍은숙 .....	86
◇ 문화원 창립기념일에 부쳐 / 김정인 .....	88
◇ 투쟁이 / 박찬수 .....	89
◇ 아침에 / 임춘봉 .....	90

### ◀ 수 필 ▶

◇ 채칼 / 이상국 .....	92
◇ 재회 / 이장호 .....	94

### ◀ 창작동화 ▶

◇ 검은 소와 누런소 / 강태희 .....	98
◇ 2001년도 문화원 주요사업계획 .....	101
◇ 세계도자기 엑스포 안내 .....	103

# 발 간 사



여주문화원장 한 만 규

지나간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역사의 교훈에 목말라하는 이유는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여주의 문화적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사성지 복원, 고달사지 발굴, 고려백자요지 발굴,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 사업등 외적인 변화는 물론 18명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여 영릉, 신록사, 명성황후 생가에 고정 배치하므로서 역사와 문화도시에 걸맞는 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부터 KBS 2TV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드라마 '명성황후'를 방영하고 있어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미 연간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그래서 더 많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침 여주군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며 여주문화의 향취를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없는 이 기회에 여주문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여주문화 제9호]에는 특집으로 파사성지 발굴조사자료를 다루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여주 캐릭터를 실었습니다. [여주문화 제9호]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여주를 다시 알고 여주문화에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애쓰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문화원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축 간 사



여주군수 박 용 국

6월의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驪州文化” 제9호 발간을 11만 여주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 고장 여주는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름진 옥토가 펼쳐져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생활의 터전으로 일궈온 고장으로 고려문학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목은 이색 선생님의 고장이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풍류를 노래하던 고장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역사적 공지와 명예로운 자부심에 걸맞는 21세기 문화관광 제일의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파사성지 복원과 고달사지 발굴, 명성황후 생가 성역화사업, 고려백자 요지발굴사업 등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지식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지식과 정보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의 회복과 우리 고유문화의 창달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  
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풍조의 만연으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 윤리의식을 되살리고 인성을 회복하여 문화를 살찌우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주문화원에서 이번에 발간하는 “驪州文化” 제9호는 여주의 맥박이 살아 숨쉬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군민들의 정신적 풍요와 문화의식을 윤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자료가 널리 배포되어 여주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척박한 여건속에서 노심초사 애쓰신 한만규 여주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주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간 사



여주군의회회장 신 승 균

여주문화 9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여주군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문화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관내에 신록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 유적과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풍속, 관습, 언어, 도덕, 종교, 오락, 교육, 스포츠, 예술, 철학 등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 및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개인이 인간의 집단생활속에서 습득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유산을 의미합니다.

문화는 생명체와 같이 탄생하여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며 순수성만을 고집하는 고유문화처럼 살아는 있지만 소멸의 문턱을 맴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훌륭한 문화는 줄곧 살아서 새롭게 숨쉬어야 하며 항상 젊고 왕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여주가 문화의 고장으로 더욱 알려지고 빛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찾아내어 계승 발전시키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현재와 미래의 문화는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여주문화”지가 우리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데 한몫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만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주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

# 논 단



# 체면(體面)의 철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성구(張聲九)

체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남을 대하는 면목과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체면이라는 말과 그에 따르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지켜야 할 규범을 존중하고 또한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동물적 욕구를 이성적 판단으로 자제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과 선비로서의 자질을 나타내는 근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이 “체면”이라는 짝막한 단어를 상당히 부정적인 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사항을 체면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 갖는 변명의 도구라든가 또는 체면이 밥먹여 주냐? 는 식의 말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되었다.

과거 조선 오백년의 역사는 선비의 체면에 의하여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오백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체면 있는 삶의 근간은 유교적 철학이 바탕이 되어 왔지만 그 오랫동안의 국가 사회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체면이라는 철학이 갖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면의 철학이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생활철학 속에서 유교적 개념이 타의와 자의에 의하여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일제 침략기에 있어서는 우리 정신 문화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또 서구의 기독교 문명의 정착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획책에 의하여 유교 문화와 유학적 이념 철학이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유물로 전락하면서 우리는 체면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조선 오백년의

역사를 매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면의 철학이 공격을 받았다. 또한 조선이 망한 여러 종류의 원인 중에 체면 철학을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물론 한가지 철학적 사고와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몰입하였을 때는 아무리 좋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사상도 부정적 요소가 표출되게 마련이다.

과거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서는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형태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서 생활의 리듬을 깨고 역사적 발전을 저해하였던 일들이 많다. 이런 일들은 체면이라는 형이 상학적 요소에 그야말로 최면(催眠)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체면의 철학은 인간적이고,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미래 지향적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마음의 근본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욱더 절망적인 현실은 오늘날 사회 각분야에서 도대체 “체면”이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정치가는 정치가,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체면을 상실한 채 글자 그대로 체면 불구하고 각자의 몫을 찾기에 급급하고 사회의 분위기는 마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도 같은 일들로 가득차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씩씩함을 금치 못하겠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요소들이 각자의 입지에서 체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주위의 모습은 혼탁함과 무질서, 부정과 부패, 패륜과 오류의 혼돈(chaos)만이 존재한다. 물론 일시적인 혼돈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구증상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경우는 분명하고 긍정적인 이념이 상충되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을 망각하였을 때의 혼돈은 혼탁과 혼돈 그 자체 이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은 위대하고 거창한 새로운 생활 철학을 주장하거나 발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생활속에 체면의 철학을 되짚어 생각해 볼 때라고 사료된다.

사회 각분야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탈(몰)인간화의 현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있고, 지식사회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자기 희생과 봉사하는 선비정신이 고갈되어 우리 주위를 삭막한 사회로 만들었다.

자기 분수와 역할, 명분과 순리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의 체면을 되찾아야 될 명제 앞에 우리는 서 있다.

- 성 명 : 장성구(張聲九)
- 본 관 : 단양(丹陽)
- 본 적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354번지
- 생년월일 : 1952년 11월 23일
-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우성④ 9동 605호

- 학 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비뇨기과 전문의

- 경 력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현)  
미국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연수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대한 비뇨기과학회 수련위원장  
대한 암학회 총무이사  
미국 암연구학회 정회원  
미국 비뇨기과학회 정회원  
경희의대 병원 QA부장

- 수 상 : 1. 제5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2. 교육부 장관상  
3. 고향 의학상 금상  
4. 여주 문화상(학술상)

- 논 문 : 종양(암) 관련 연구 논문 130여편



# 마음속에서 되뇌는 「여주팔경」



전 여주군청 지역경제과장

조 대 현

몇 일전 사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상위에 놓인 깔개종이에 『여주팔경』과 해설이 새겨져 있다. 『이능두견』 『파사과우』 『학동모연』 『팔수장림』 『연탄귀범』 『마암어등』 『신록종성』 『양도낙안』 아름다운 풍경이다.

혹자는 지금 다 없어지다 시피 한 『여주팔경』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물론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러기가 내려앉든 양섬에 웅장한 다리 발이 서고 제비여울은 골재채취로 급한 물살이 겨우 남아있어 제비꼬리 형태는 사라졌다. 학동은 아파트 숲을 이루고 도시의 소음은 신록사 저녁종소리를 삼켜버렸다. 마암의 어등은 대교 가로등아래 감추어지고, 팔수장림은 베어진지 오래다. 그래도 영릉에는 봄철에 두견이 울고 여름철이면 파사성지 이마 위를 지나가는 소나기가 있지만 분명 여주 팔경은 우리 곁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강가에서, 숲길에서, 일터에서 잠시 틈을 내어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포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멋스런 여주 팔경의 모습이 그려지고 귀기울이면 그 소리의 꼬리가 컷전에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정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마음썹썹이에서 이루어진다. 생활여건을 편하게 만들고 현대 삶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적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큰 틀에 지역정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지역정서도 돈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에 나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사회는 돈의 가치가 앞서있다. 그러나 잘 정돈된 공원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품에 안기란 어딘가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된다.

오랜만에 버스 편으로 서울 나들이를 했다. 높은 빌딩

숲 아래 잘 가꾸어 놓은 공원에는 연산홍을 비롯한 봄 꽃이 활짝 피었다. 그러나 그 꽃 모두가 생화인데도 조화 같은 느낌이 든다.

아! 이래서 도시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찾아 철마다 변해 가는 자연의 모습과 소리와 싱그러움을 느끼려 도시를 나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뻑뻑이 흐르는 자동차의 물결과 매연과 소음 속에서 조화처럼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자연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계문명만에 의지하여 물질만능의 병폐에 갇힌 채 끊임없는 경쟁만이 삶의 길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모습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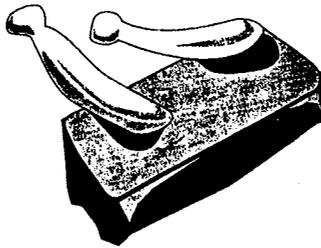
지금까지 인류는 만물의 조화와 더불어 사는 것을 삶의 최고가치로 알고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요란한 서막을 열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그 여명이 터 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도 미움과 경쟁의 마음을 키우며 기술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서 지나간 시간에 이루어진 의식과 자취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골동품으로 여기고 일부는 아예 폐기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현은 그의 저서 힐링 소사이어트(Healing Society)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깨달음이 실천이라고 했다. 진정한 자신의 본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앎을 바탕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깨달음의 실천이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있는 고통의 원인은 물질적 진보만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영혼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한 채 물질에만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강과 더불어 살던 우리 선조들은 저녁 강가에서 양섬에 무리 지어 내리는 기러기 떼를 바라보았고, 강 건너 학동마을에서 저녁을 짓는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그리고 신록사에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도 들었고, 고기를 낚는 어선의 등불도 보았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의 맑은 눈과 순수한 마음의 빛이 『여주팔경』을 지어 낸 것이다. 그때도 가난이 있었고 이웃과의 다툼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만은 지금 우리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잘 짜여진 공원에 화려하게 핀 꽃보다는 바위틈에 매달리듯 피어있는 꽃이나 양지 녀에 수줍게 피어있는 작은 풀꽃이라 할 지라도 저마다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어우러져 숲을 이루는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깨달음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피워진 여주의 정서가 우리마음 속에 이어지고 있다면 비록 자취는 감춘 지 오래 라도 여주 사람들 마음의 창에는 『여주팔경』이 환영으로 남아 오래도록 간직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향토 조명



## 매산서원



梅山書院  
前院長 임원식

道德과 義理를 崇尚하며 그 遺蹟을 保存하는 一環策으로 梅山書院을 守護發展 시키는 것에 一大目的을 둔다. 管内 陵西面 番都里 三二一番地에 所在한 三憂堂 文益漸 先生과 牧隱 李穡先生의 位牌를 奉安한 書院으로 鄉土遺蹟 第一號로 지정되었다. 文先生은 高麗末의 文學者요 文臣으로 左司議大夫를 지낸 文學者로서 우리 韓國經濟學에 大勳者이다. 우리 각 祖上任들과 우리들도 其功勳偉大 함을 明知하여야 합니다. 衣食住의 하나인 衣服 숨이불등을 造創하여 주신 産業革命臣이다.

牧隱 李先生은 高麗末葉 性理學者로서 三隱이신 圃隱 鄭夢周先生 牧隱李穡先生 陶隱李 崇仁先生 高麗末의 偉文한 文學者들이시다. 牧隱 李先生의 父親 稼亭 先生은 驪州郡 北內面 稼亭里에 住居하시여 稼亭里로 里名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稼亭 李穀先生의 아드님 牧隱李穡은 우리나라 全國 二三四 個各郡의 鄉校를 創立하시여 全國民 儒林教育에 偉대한 大勳이 至大하였음이다.

本 梅山書院은 三憂堂 先生의 曾孫인 사헌부감찰 文致昌이 여주에 落鄉하면서 三憂堂의 부비묘가 現慶尙南道 합천군 삼기면 어진리에서 忌祭를 奉享하였다. 文致昌 아들되시는 文論이 四百有年前 一六〇五年에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번매동에 사당을 建立하고 三憂堂으로 名稱하여 別廟祭를 奉香하여 오던

중 사당이 훼손되고 담장이 붕괴되어 여러번 보수작업을 하여 오던중 西紀 一九五二年 當時 驪州警察署長 文光圭에 의해 새로이 重修하였다. 其後 倭政 三十여년을 겪고 六二五 事變을 겪게 되니 祠堂 강당 담장이 붕괴되어 西紀 一九六三年度에 許哲 驪州郡守 奉香을 하게되니 붕괴된 祠堂을 보고 本孫들에게 몹시 나무람과 同時에 誠金을 모아 補修를 하라하니 廟下子孫들은 集成村을 이루고 있으나 모두가 빈곤하여 수차례 會議合議하고 誠金中 三年后 서기 一九六六年 李在德 驪州郡守의 勸誘를 하게되어 卽席에서 貳萬圓 誠金하고 十八萬圓을 모금하여 本祠堂 六坪 一九六七年에 內三門과 당장 四十m의 工事費 十萬圓을 지원받아 축조를 받았고 李在德 郡守의 本廟 竣工의 高유제를 올리게 되어 驪州鄉校典校 이희원 大老祠院長 민영우 韓山李氏 代表 이풍직 남평文氏 代表 文京福廟下 代表 文炳學 驪州郡民 儒林諸賢과 수차례 회의 결과 서원으로 승격할 것을 결정하고 三憂堂 文益漸先生은 牧隱 李穡先生과 稼亭 李穀先生으로부터 同文修學을 하고 高麗 忠臣으로 性理學을 研究하였으니 牧隱 李先生과 三憂堂 文先生 두분을 奉安할 것으로 決定하였다. 書院 名稱을 (梅) 番梅洞의 梅자와 牧隱 李先生의 貫鄉이신 韓山의 (山)로 하여 梅山 書院으로 偉大 決定하고 初代院長으로 前 驪州郡守를 推薦 具茲允氏로 하고 歷代院長 李鳳九 前 驪州邑長 閔承益 前 驪州鄉校堂議 林元植 現 院長 朴稚貞 院長에 이르고 있으며 年一祭로 每年春 三月中丁日에 奉祭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李炳達 郡守가 부임하여 서기 一九六八年에서 一九七十年 사이에 講堂 二十一坪과 外三門 五坪 담장 一百五m에 總工事費 二百萬圓중 郡費 50%와 자부담비 五十%로 완공을 보아 書院의 면모를 一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京畿道 指定文化財로 乘格을 받으려하니 書院 全體建物이 문화재 規格外에 未達이라하여 梅山書院長 林元植은 李在錫 驪州郡守에게 書院實情을 報告하고 年次的으로 書院의 規格外 建物을 再建築 할것을 議論하니 서기 一九八五年에 本廟八坪 內三門 四六坪 담장 49m의 總工事費 一十萬圓 全額을 支援받아 再建築 하고 其後 洪鍾大 郡守가 부임하여 서기

一九八九年부터 一九九一年에 강당 二十一坪 外三門 五八坪 담장 一一九m 總工事費 五什萬원 全額을 支援받아 再新築 하고 其后 朴容國 民選郡守와 郡議會議長 및 議員各位 님들의 지원이 지대하여 서기 一九九五年에 梅山書院 東齊西齊 八四二坪을 總工事費 一億원 全額을 支援받아 新築工事を 하고 계속 事業으로 二〇〇〇年에 東齊담장 四十m의 工事費 一仟萬원을 받아 다시 築造를 하니 道指定 文化財規格으로 完成된 書院이 되었다.

牧隱李先生 三憂堂 先生의 略史로는 牧隱 李先生的 휘는 穉 이시고 本貫은 韓山이며 자는 역숙이고 호는 牧隱이다.

서기 一三二八年부터 一三九五年 사이에 人物이다. 三隱의 一人이시고 先生은 서기 一三四九年 二十一歲에 元朝登科하여 國子監 生員으로 피임하여 性理學을 研勉하시다가 서기 一三四九年 歸國하여 高麗恭愍王 二年에 文科에 及第后 많은 要職을 거쳐 서기 一三八八年 六十一歲에 推忠保 同總贊化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 文下侍中判典理司事右文館大提學 韓山府院君을 역임하시고 韓山伯에 奉하심과 諡號를 文靖公을 奉하시고 李先生은 서기 一三九五年 五月七日 六十九歲에 피서차 여주 여강 제비여울에 이르러 불의에 舟中에서 폭사를 하시었다.

三憂堂 文先生의 휘는 益漸이요 자는 日新이며 初號는 思隱이시며 서기 一三三一年부터 서기 一四〇〇年 사이에 人物이다.

先生은 강성현 (현 慶尙南道 山淸)에서 出生하여 八歲에 學堂에 入學하여 十一歲에 牧隱先生과 같이 稼亭 李穀先生에게 同文修學하여 二十歲에 經德濟로 進學하여 二十三歲에 征東省 향시에 及第하고 三十歲에 新京東堂試에 及第하여 禮文館 직장에 선임되었다가 서기 一三六二年에 承奉卽에 선임되고 서기 一三六三年에 司諫院 左正言에 보직되어 其年에 元나라 書狀官으로 갔다가 順帝의 제압에 불복하여 交趾 現越南으로 귀양을 갔다가 서기 一九六六年에 三年만에 사함을 받아 兪경으로 회료 중 白雪같은 꽃을 보고 면화인줄 알아 具씨앗 三알을 필관에 비밀히 넣어가지고 돌

아와 고향땅에 심은 것중 한알이 결실되어 三年만에 크게 번식하여 全國에 번식되니 이로써 처음으로 솟과 무명베를 만들어 따스하게 옷을 입게되니 太宗一年 서기 一四〇一年에 嘉靖大夫議政府參知政事兼禮文館大提學弘文館春秋館知事贈하고 또 竭忠國啓運純誠佐翊澤重廣利貞充功臣을 사하고 江城君에 奉하고 忠宣公의 諡號를 내리시고 부비묘를 사하시고 서기 一四一九年에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領議政을 贈하고 富民候를 奉하시다. 追記하면 書院은 朝鮮中期부터 中國唐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도입하였다. 內外 名賢을 祭祀하는 書齊로써 民間國民教育을 初進하게 되었다. 서기 一五四二年 中宗 三十七年 豐基郡守 周世鵬이 文學者 安裕를 모시는 祠堂을 建立하고 白雲洞書院이라 名稱한 것이 우리나라 書院에 先進이다. 其後 全國 各 地方에 書院이 생겼으며 서기 一五五〇年 李退溪先生의 建議로 임금님이 白雲洞에 紹修라고 간판을 내리니 이것이 賜額 書院의 始初가 되었다.

安東에 李退溪 祠堂을 陶山書院으로 하고 坡州에 李栗谷先生 紫雲書院이 있고 驪州 大老書院에 宋尤菴 先生을 奉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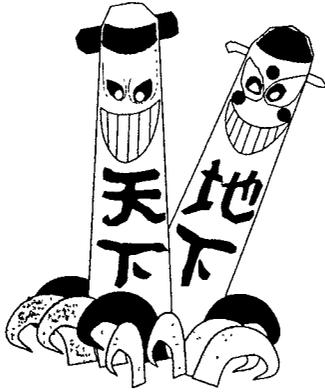
新羅人 崔致遠은 一一〇〇年前에 中國 唐나라 南京 留學時 幼年 十一歲에 (人百已千)에 精神으로 타인이 百回進力하면 자기는 千回를 進力하시여 登科하였다 한다.

韓國忠孝之大國이고 驪州文鄉之牧州라 나는 主張하며 驪州文化를 發展시키고 꽃피우기 爲하여 全郡民 各位에서 努力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

# 유적지 탐방



# 여주 파사성지 1차 발굴조사



# 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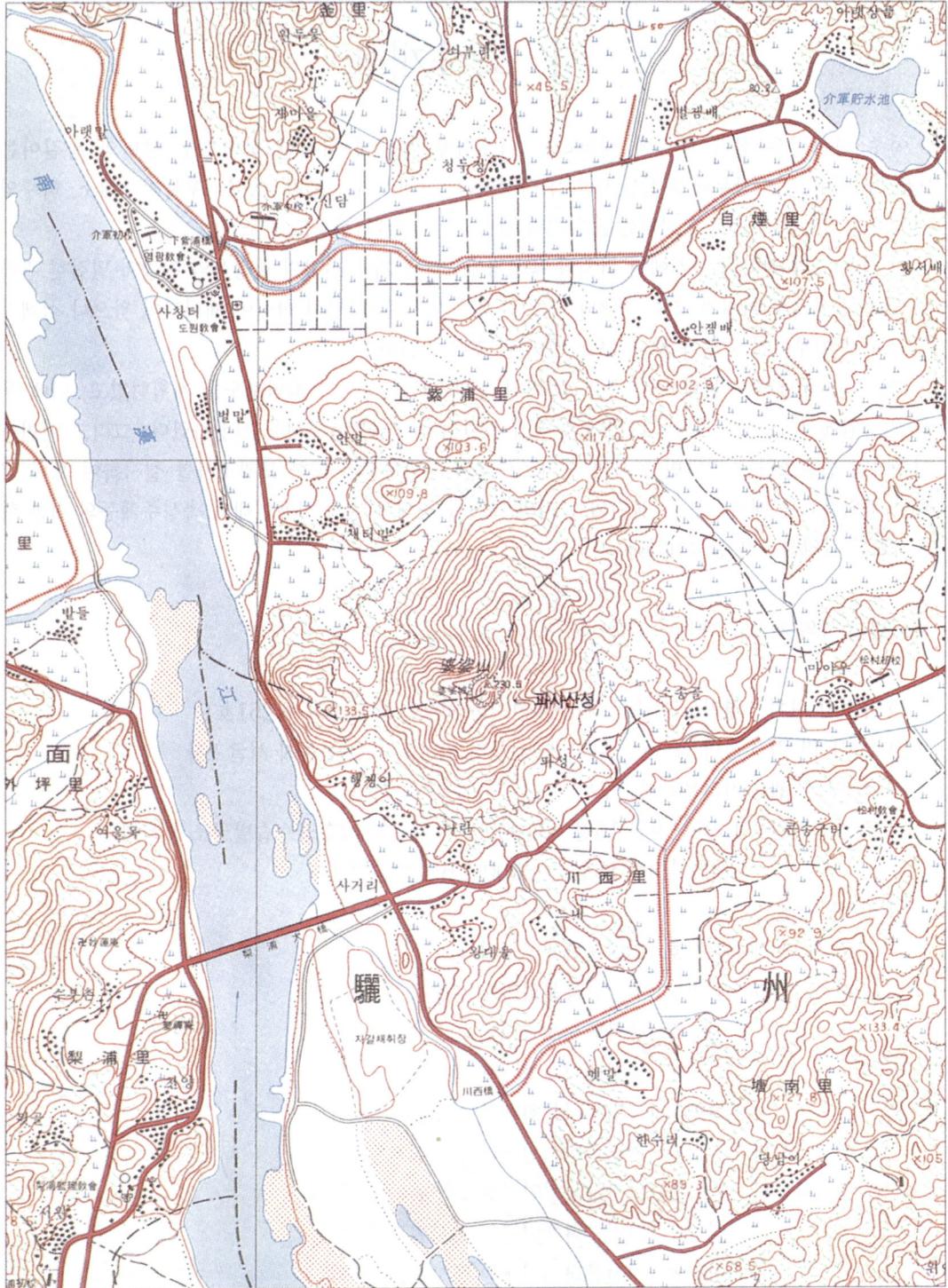
여주 파사성은 한강 중류에 해당하는 이포나루 부근에 위치한 석성으로 성벽의 총길이는 935.5m이며, 산정상부에 축성된 테피식 산성이다. 성내부에는 문지 2개소, 우물지 1개소, 다수의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개 지역 평탄대지가 있다(현황도 참조).

이 성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위치와 축성방법등을 근거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성으로 여겨져 초축 연대와 축조 주체 등에 관한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었다.

한편 여주군에서는 문화유적 보수·정비의 일환으로 파사성의 성벽보수를 계획하였고,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 1999년 9월~11월에 성벽에 관한 긴급수습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지난번 조사의 추가조사로서 성벽부분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복원자료를 제시하고, 건물지와 문지의 조사를 통해 산성의 사용연대와 축성주체등의 기본 학술자료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유적의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9번지 일대(사적 제251호)
- 2) 조사면적 : 성벽 503m, '나지구' 건물지 발굴조사 및 동문지 시굴조사
- 3) 조사기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 4) 조사기간 : 1999년 9월 15일 ~ 1999년 11월 13일 (긴급수습발굴조사 시행)  
2000년 3월 15일 ~ 2000년 6월 2일(현재)
- 5) 조사단구성
  - 조사단장 : 장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 지도위원 : 김병모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차용걸 (충북대학교 교수)  
최병현 (숭실대학교 박물관장)  
최맹식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김성태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조사원 : 김아관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성수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이창원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보조원) 외



〈도면1〉 유적위치도(1/50000)

## II. 조사경과

### 1) 연혁

- 《宣宗實錄》卷 六十一, 二十八年 乙未 三月  
… 備邊司 啓謂 以僧人義巖 爲都摠攝 今修築婆娑城 …
- 《宣宗實錄》卷 六十一, 二十八年 乙未 六月  
… 備邊司 啓曰 … 婆娑山城 則都摠攝義巖 方於城內 創建屋宇 又於城下 廣開屯田 種子則給附近官穀 農糧則給除 番軍士代糧 城子 頽之處 亦以僧軍 漸次修築 秋城所收之穀 亦宜儲峙城中 以備緩急之用 今義巖收穫之後 將元數牒報本司爲當 且義巖所訴
- 《宣宗實錄》卷 六十六, 二十八年 乙未 八月  
… 上 教備邊司曰 婆娑城 義巖築之矣 城之制度 義巖爲能知之 特遣有計慮之人 或使看審 或教制度 回 啓曰 築城有法 若不得其法 則與不築無異 近曰外方 雖往往有修築山城之役 而其於 雉樓櫓城門甕城之制 皆不料理 且必從山勢屈曲而爲城不知其要…
- 《宣宗實錄》卷 六十六, 二十八年 乙未 八月 : 파사산성의 형세에 대해 기재
- 《宣宗實錄》卷 七十四, 二十九年 丙申 四月 : 파사산성의 공역이 순조롭지 못함을 걱정하며 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록에 수차례 파사성의 수축관련기사가 기재됨.
- 《東國輿地志》  
… 在州北四十里有小山臨江城據其上未知何代所築 本朝時當倭亂僧將義巖繕修石築周一千一百步城中鑿井今半頽落本朝柳成龍詩婆娑城上草 婆娑城下水 廻 …
- 《輿地圖書》  
… 婆娑城在州北西四十里臨江有城舊其城中有泉壬辰倭亂後丁酉西崖柳成龍主其議使黃海道僧軍摠攝義巖收遊僧築之數年城樓櫓及軍器皆備其後城壞只府存半堞 …
- 《增補文獻備考》  
… 驪州婆娑古城在北四十里有小山臨江 宣祖二十五年倭亂僧將義巖繕修石築 古山城與賢北五十三里石築 …
- 《大東地志》  
… 婆娑城西北四十里有小山臨江宣祖二十五年僧將義巖修築古城周一千一百步 …
- 1997년 44m 동문지 부근 성벽 복원완료.
- 1998년 남문지에서 동문지에 이르는 성벽 448m 복원 계획.
- 1999년 남문지 부근 성벽 55m 복원 계획.
- 1999년 9월 15일 ~ 11월 13일 성벽보수구간 긴급수습발굴조사 시행.

## 2) 조사방법

- 성벽 : 잔존 성벽중 북벽 정상부의 1곳을 임의로 지정하여 No. 0지점으로 선정한 후 성의 서쪽방향으로 20m의 길이로 구간을 나누었다. 설정된 구간에는 폭 2m내 외의 트렌치를 성벽의 안과 밖으로 설정하여 성벽의 기단구조 확인과 외벽선 조사, 내협측면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나지구 : 동문지 부근에 위치한 평탄대지로 10m×10m의 그리드를 설정한 후 그 내부에 트렌치를 구획하여 문화층을 구분하는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전면제토 하여 건물지등을 조사하였다.
- 동문지 : 이번 조사에서는 시굴조사가 계획되었던 곳으로 현재 등산객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기단을 확인하기 위한 폭 3m의 트렌치만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 III.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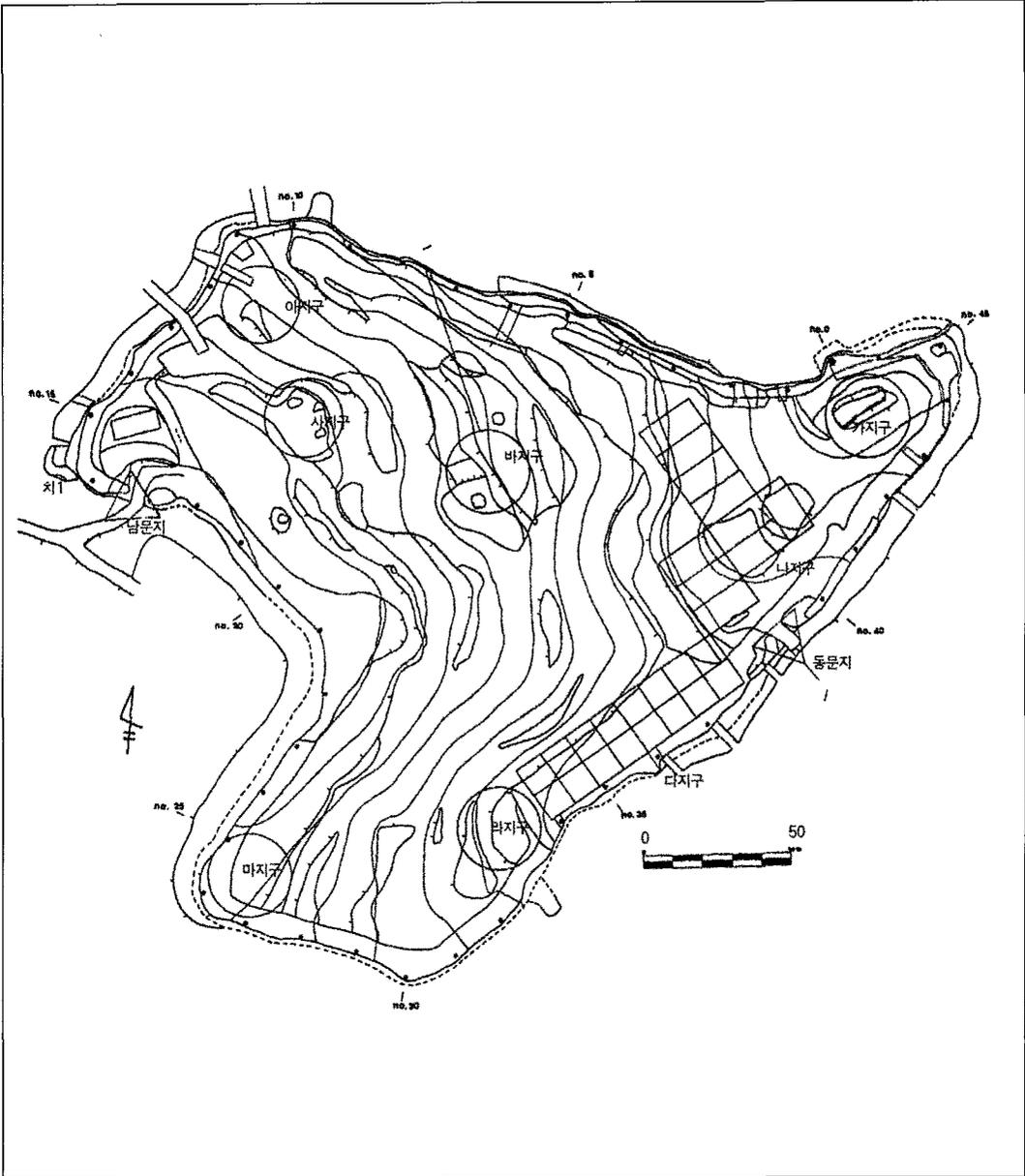
## 1) 유구

### 가. 성벽

테피형으로 축조된 파사성의 성벽은 비교적 양호한 보존상태를 가지고 있다. 확인된 성벽의 총길이는 상부의 중앙을 기준으로 935, 5m이며 이번에는 서벽, 북벽 그리고 동벽 일부가 조사되었다.

파사성은 내외협축으로 축성되었는데, 현존 성벽의 최고 높이는 6.5m, 상단의 폭은 325~600cm 내외로 추정된다. 성의 외벽에서 확인되는 축성기법은 2가지 이상으로, 서벽구간은 부정형 활석의 한쪽 면을 면석으로 이용하여 축성한 뒤 빈 공간에 작은 켜기돌을 채워 넣었다. 북벽구간은 10~15cm 두께의 치석한 장방형 석재를 면석으로 이용하여磊자형으로 쌓았는데, 일부 구간에는 장방형 석재를 이용한 구간과 부정형 활석을 사용한 구간이 혼재하고 있기도 하다. 성벽의 기단은 암반층을 경사지게 다듬어 그위에 기단석으로 사용되는 장방형 석재를 1~3단 정도 쌓았으며, 일부 구간에는 기단보축이 확인되는데, ㄱ자형 보축과 비스듬히 경사지게 쌓은 2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성벽의 내협측면은 성내 지형에 따라 축조 높이를 다르게 하여 50~500cm까지 쌓았는데 대략 현지표하 80cm 아래가 구지표면으로 판단된다. 이는 성내면의 유물출토상태와 토층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축성기법은 외벽과 같다. 또한 동벽의 No. 45구간에서 No. 42구간에는 내협측면 앞쪽으로 폭 1m정도의 활석을 경사지게 깔았는데 이유는 알수 없다. 아마도 이 구간이 경사가 심한 구



〈도면2〉 산성현황도



〈사진1〉 파사성전경



〈사진2〉 북벽 외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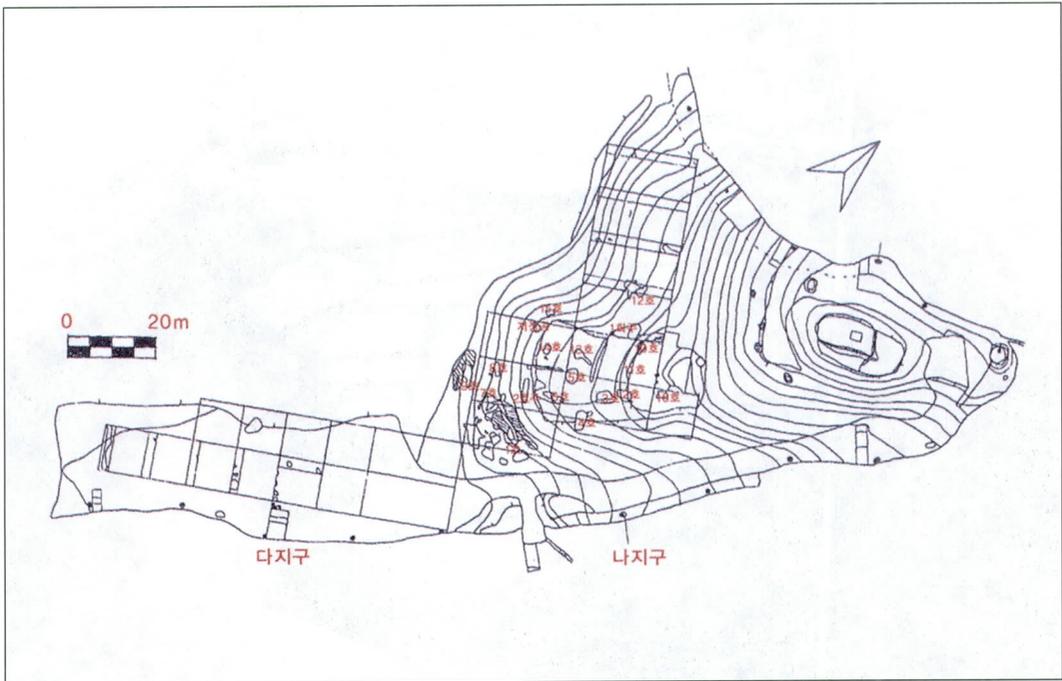
〈사진3〉 No. 45구간 성벽 내협축면



〈사진4〉 No. 0구간 성벽 내협축면



〈사진5〉 성벽 기반보축



〈도면3〉 나지구 유구배치도



〈사진 6〉 나지구 전경



〈사진 7〉 1호 건물지 전경



〈사진8〉 9호 구들유구 전경



〈사진9〉 12호 구들유구 전경



〈사진 10〉 14호 구들유구 전경

간으로 동문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 처리와 관련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과 북벽이 연결되는 회절부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구들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No.0 ~ 1구간 및 일부 구간에서는 성벽 상단 중앙 부분이 계단식으로 처리되어 있어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인접구간의 교란이 심해 확인할 수 없다.

### 나. 나지구 건물지

나지구는 성 동쪽 구릉상의 평탄대지로 동문지 인근에 위치해 문지 관련유구, 혹은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결과 총 14기의 구들 유구와, 1기의 건물지 및 기타 유구가 노출되었다. 구들 유구의 상면은 대부분 교란되었으나, 연도와 아궁이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 2.5 ~ 6평의 내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주로 고려청자편과 도기류로 대략적인 사용 시기는 고려 초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유구는 조선백자편이 출토되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쓰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호 건물지는 기단석과 초석을 갖춘 건물지로 좀더 추가조사가 되어야만 전체 규모와 성격이 밝혀지겠지만 성내 대형건물지 축조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 지명	전체크기 (단위cm)	조 사 현 황	비 고
1호	1,500×500	기단석렬과 초석이 잔존하며, 주변에 나팔여초로 추정되는 외적렬이 있으나, 교란이 심함.	회색연질 뚜껍편 등
2호	320×240	남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2줄의 고래가 확인됨.	
3호	400×200	2호구들 유구 아래쪽에 위치, 상부 덮개돌 부분이 교란됨.	
4호	500×300	양호한 상태로 상부 덮개돌이 남아 있음. 연도 부분에서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토기편을 수습하였음.	고려청자편
5호	400×200	일부 교란. 2줄의 고래가 조사 됨.	
6호	400×150	교란상태가 심해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음	
7호	500×200	상부 덮개돌 없으며, 1호 건물지 북쪽에 위치 함.	
8호	500×150	구름 중간부분에 위치하며 교란상태가 심함.	
9호	500×200	구름 하단부에 위치. 일부에 상부덮개돌이 잔존 함.	고려청자편
10호	100×150	1/2이 노출되어 있으며, 교란이 심함.	
11호	400×200	10호 구들 유구에 인접해 있으며 교란이 심함.	
12호	300×200	가장 양호한 상태로 아궁이와 연도부분이 조사됨.	
13호	500×250	5호 구들 유구와 인접해 있으며, 2줄의 고래가 조사됨.	
14호	400×200	상부 덮개돌이 잘 남아 있으며, 아궁이와 연도가 조사됨.	
15호	200×150	파손되어 1줄의 고래부분만 잔존.	

#### 다. 동문지

개방형 문지로 전면(前面)에 방형의 옹성이 축조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옹성 앞쪽으로 기단을 확인하기 위한 트렌치를 설정하였는데, 조사결과 방형 옹성은 2회이상 수축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옹성의 기단석에는 2회이상의 수축흔적이 남아 있으며, 기단석 하단에는 사선방향의 석렬이 1단 축조되어 있는데, 상면은 나팔여초로 보이는 외편이 깔려 있다. 석렬의 아래 단으로 평면 반원으로 추정되는 석렬 1단을 더 축조하였는데, 치 1의 조사 예로 보아 반원형 석렬 하단부에 보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규모의 확인조사는 다음번 조사시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 11〉 동문지 전경

## 라. 기타 유구

### ①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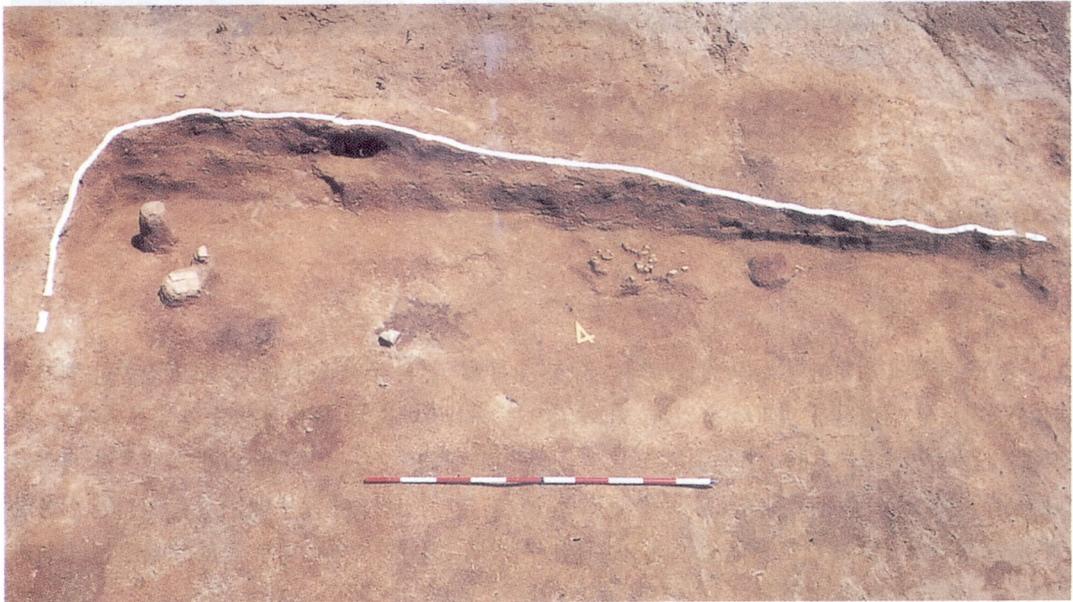
나지구 북쪽에 위치하며 한강이 조망되는 구릉 상부에 있다. 조사결과 1/3정도가 잔존한 백제시대 주거지로서 남벽선이 파괴되어 있다. 이 주거지는 풍화암반을 파 만들어진 수혈식 주거지로, 바닥과 벽은 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분적으로 소토(燒土)와 목탄흔이 확인된다. 내부 시설로는 주거지 북쪽으로 부뚜막 시설 1기가 남아 있다. 이 부뚜막 시설은 할석을 이용하여 평면 형태가 ㄷ자형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옆에서 연도가 확인 된다. 내부 출토 유물로는 승석타 날문 호 1개체가 수습되었다.



〈사진 12〉 1호 주거지 전경

## ② 2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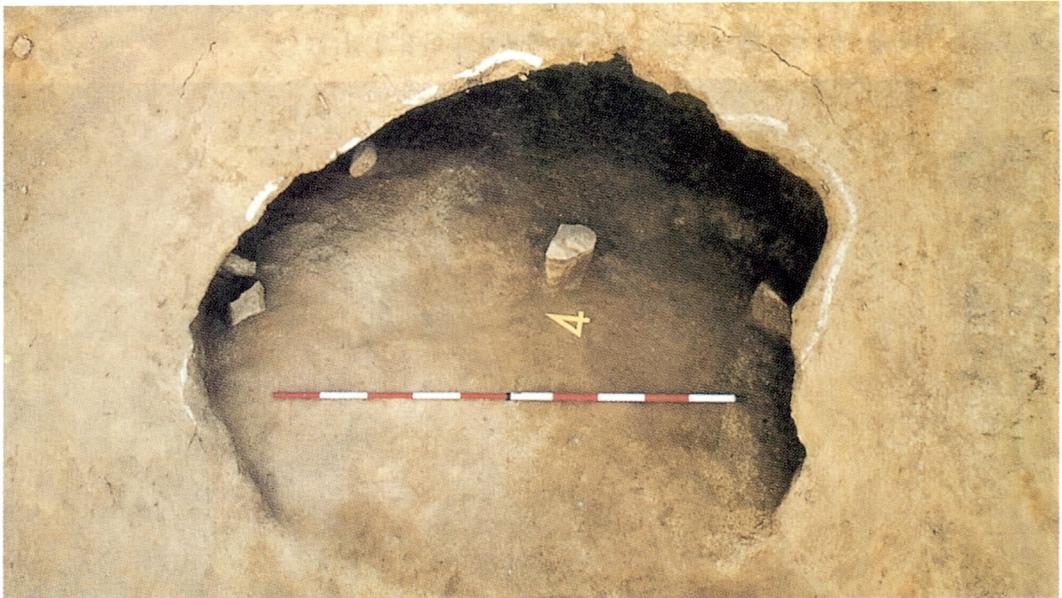
나지구 남쪽 구릉 중간부분에 위치한 장방형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이다. 현재 크기는 5.5m이며 수혈의 깊이는 50cm로 바닥면에서 소토층이 확인된다. 풍화암반층을 파 만든 수혈주거지로 내부 출토 유물은 2개체의 심발형 무문토기가 있다.



〈사진 13〉 2호 주거지 전경

### ③ 저장공

나지구 서쪽 구릉 중간부분에 위치하였으며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파 만들었다. 직경 290cm의 원형이며, 내부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형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나 정확한 성격은 알수 없다.



〈사진 14〉 저장공 전경

### ④ 기타 유구 1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석렬유구로 주변에서 동전 1점과 회색격자타날호 동체부 1점이 수습되었는데 교란이 심해 정확한 성격은 미상이다.

### ⑤ 다지구 추정건물지

시굴트렌치에서 적심으로 추정되는 등근 석렬과 주초석 1기가 확인되었다. 주변에서 나말여초로 추정되는 와적렬이 노출되었으며, 2차조사시 추가조사할 예정이다.

### ⑥ 치 1

남문지 서쪽의 치 1은 전체규모 15m로 성의 외벽에 붙여서 축조되었다. 구조를 살펴보면 치의 전면(前面)은 바닥을 편편히 고른 생토층위에 장방형으로 치석한 석재를 비스듬히 경사를 두어 쌓은 뒤 그위에 다시 장방형 석재 1단을 쌓고 조금씩 안쪽으로 물려 평면 방형형태로 축조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방형단은 모두 3단이며, 치의 남쪽면은 3단의 반원형 단이 축조되어있는데 산성 서벽의 기단보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치의 북쪽면은 70cm이상의 큰 석재를 사용하고 기단의

로 잡석을 섞은 토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치 1은 여러 시기에 걸쳐 수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수축시기는 파사성이 대대적으로 수축된 임진왜란 당시로 추정된다. 치의 상부구조는 현대의 군시설로 교란되어 확인되지 않지만, 치의 주변으로 조선시대 와적렬이 출토되고 있어 기와를 사용한 건물이 상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치 1은 한강을 바라보고 산정상상으로 오르는 계곡을 경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남문지와 인접해 있다.



〈사진 15〉 치 1 전경

## 2) 유 물

이번 조사에서는 무문토기(구순각목토기 등)와 반월형석도, 마제석촉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과 원삼국시대 승석타날문토기, 중도식무문토기, 그리고 백제 타날문토기, 삼국시대 고배,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및 각종 기와류, 자기류, 철기류 등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걸친 유물이 출토되었다.

### ① 토기류

주거지 내에서 소량의 무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중도식무문토기와 승석타날문토기 수 편이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백제 주거지에서는 저부에 격자타날, 동체부에 승문타날된 호가 출토되었으며, 지표와 성내벽 매몰토 등에서 단각고배류와 통일신라 원점인화문토기, 주름무늬병 등



〈사진16〉 삼국시대 타날문토기류



〈사진17〉 삼국시대 고배, 완



〈사진18〉 No. 0구간 내벽트렌치 출토 연질잔

이 편으로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백제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구연의 형태로 보아서는 호인 것으로 보이거나 문양구성이나 시문기법은 전형적인 장란형 토기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각고배류는 영남지방 고분과 비교해 볼 때 6세기 중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속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대각에 투창이 없이 각단이 말려있는 점이나 연질이 많은 점 등은 오히려 매룡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본다면 파사성 출토 단각고배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 사이에 편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주름무늬병편은 어깨의 각도나 주름의 형태 등으로 볼 때 9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자기류

자기는 고려 초기의 청자와 조선 중기의 백자가 주를 이루며, 분청사기편도 극소량 출토되었다. 청자는 병과 완 등의 기종이 보이며, 고려 백자도 수점 출토되었다. 백자는 발과 완이 주된 기종이며 대부분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백자 가운데는 바닥면에 '秘軒'(추정), '惠○銘' 등의 명문이 있는 것도 있다.

### ③ 철기류

철기류는 성벽 내외의 매몰토에서

출토된 화살촉과 소도 및 다양한 크기의 못, 호미, 무쇠술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중 철촉은 오각형의 촉두에 세장방형의 촉신으로 6세기 후반이후 삼국시대 산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 ④ 기와류

기와는 통일신라 후반기의 기와와 조선시대 기와로 양분된다. 통일신라 후반기의 기와는 수키와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나지구에서 출토된 기와는 대체로 긴 선문의 문양을 중심으로 측면분할수법이 한쪽은 내측에서, 한쪽은 외측에서 분할한 토수기와의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기와들을 통일신라 중반기에서 고려시대 전반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다. 조선시대 기와는 남문지 주변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동문지 상층에서도 일부 보이고 있다. 문양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파도문양이 주를 이룬다.



〈사진19〉 통일신라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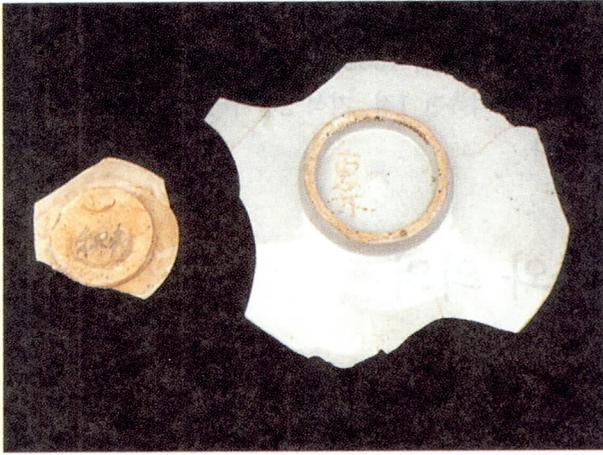
〈사진20〉 기타 도 · 토기류



〈사진21〉 고려청자 · 백자



〈사진22〉 조선백자



〈사진23〉 秘軒, 惠〇 銘 백자



〈사진24〉 각종 철기류



〈사진25〉 각종 석기류



〈사진26〉 수기와류



〈사진27〉 암기와류



〈사진28〉 祥符元寶(추정) 출토상황

#### ⑤ 기타 유물

청동유물로는 국자, 뒤꽂이 등이 출토되었으며, '祥符元寶' (北宋, 1008년~1016년)로 판단되는 동전 1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반월형 석도편 1점, 마제석촉편 1점, 지석 2점이 출토되었고, 이밖에 다양한 종류의 고려·조선 도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 IV. 조사성과와 의의

파사성은 한강 중류변에 위치한 위치적 특성과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멀리까지 방비가 가능한 점, 충주, 조령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위치한 점등으로 일찍부터 주목 받아온 중요한 산성이다. 이는 성내에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장시간에 걸친 유물이 수습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파사성은 내외협축으로 축성된 석성으로, 암반층을 기반층으로 하여 치석된 장방형 성들을 이용한 초축 성벽과 부정형 할석을 이용한 수축성벽이 있다. 성벽의 체성상태로 판단 할 때 성벽은 여러 시기에 걸쳐 수축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폭과 높이는 자연 지형에 따라 조절되었는데 특히 북벽과 남벽의 낮은 지형을 성벽으로 보강한 듯 동벽과 서벽에 비해 높게 축조되었다. 성벽 대부분의 구간에 기단보축을 행하였는데, 역시 여러 번의 수축을 거쳤다.

성내 구조물로는 치 3개소, 문지 2개소, 우물지 1개소, 수구지 1개소 등이 있다.

치는 취약한 계곡 능선상에 축조되었는데 치 1은 고전적인 반월형 기단위에 방형단을 축조하고 있다. 치의 높이가 성벽과 같았을지 또는 낮았을지는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상부교란상태가 너무 심해 알 수 없어 추가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나지구의 구들 유구들은 산성 내부에서는 조사 예가 드문 예로 임시적인 거주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 시기는 수습된 출토유물로 보아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지역에는 이른 시기의 주거지 2기와 저장공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인근의 양평 상자포리 유적등과 같이 한강유역 청동기문화의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산성내 지표면에서 반월형석도와 마제석촉등이 수습되어 인근에 다른 주거지가 더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파사성의 여러 유구중 백제토기 주거지는 산성의 초축과 관련하여 어려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 주거지와 산성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볼 때 파사성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벽조사중 출토된 삼국시대 유물은 대부분 신라로 추정되는 토기류였으며, 축성기법 또한 신라 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사성의 위치가 강안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지임을 감안 할 때 백제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V. 토의사항

### 1. 파사성의 초축문제

→ 파사성은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된 신라성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수축과정에서 폐기된 신라 토기편들이 수습되고 있어 이를 증명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 내부에서 수습된 백제토기가 해석되어야 할 과제이다.

### 2. 파사성의 보수·정비문제

→ 파사성은 현재 성벽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연차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성벽 이외의 부분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연차발굴조사 진행방향

→ 이번 조사는 1차발굴조사로서 향후 파사성조사를 통해 얻어질 학술적 가치를 예상하고 이를 위한 발굴조사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

백

# 고장을 빚낸 인물



## ▶ 고장을 빛낸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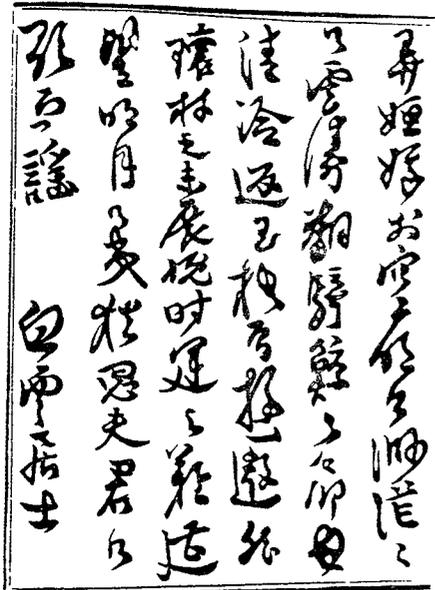
### ▶ 고려 민중의 시인

**이규보(李奎報)** 1168(의종 22) ~ 1241(고종 28)

고려의 문신·재상. 본관은 황려(黃驪 : 驪州). 초명은 인저(仁氏),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만년에는 시·거문고·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한다. 호부시랑(戶部侍郎)을 지낸 윤수(允綬)의 아들이다. 9세 때부터 중국의 고전들을 두루 읽기 시작하였고, 문재가 뛰어남을 보였다. 14세 때 사학(私學)의 하나인 성명재(誠明齋)의 하과(夏課 : 여름철에 절을 빌려 행한 과거시험준비를 위한 학습)에서 시를 빨리 지어 섬배문사로부터 기재(奇才)라 불렸으며 장래가 촉망되었

다. 이때 그의 희망은 장차 문한직(文翰職)을 맡아 문명을 날려 크게 입신출세하는 것이었다. 지역적 형식주의에 젖은 과시의 글(科擧之文) 같은 것은 하찮은 소배인들이 배우는 일로서 멸시하였고, 그가 사마시(司馬試)에 연속 낙방한 큰 요인의 하나는 이러한 데에 있었다. 「16세부터 4,5년간 자유분방하게 지냈으며, 기성문인들인 강좌칠현(江左七賢)과 기맥이 상통하여 그 사회에 출입하였다. 이들 가운데서 오세재(吳世才)를 가장 존경하여 그 인간성에 깊은 공감과 동정을 느끼곤 하였다.

1189년(명종 19) 유공권(柳公權)이 좌수(座首)가 되어 실시한 사마시에 네번째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이듬해 임유(任濡)가 지공거(知貢擧), 이지명(李知命)이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실시한 예부시(禮部試)에서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곧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게 되자, 25세 되던 해 개경의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가 시문을 지으며 세상을 관조하며 지냈다. 장자(莊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 : 세상의 번거로움이 없는 허무자연의 약사(藥士)의 경지를 동경하기도 하였다. 백운거사라는 호는 이 시기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26세(1193)에 개경에 돌아와 지난 시절과는 달리 빈궁에 쪼들리게 되었고 수년래의 무관자(無官者)의 처지를 한탄하게



이규보 글씨 《명가필보》에서

되었다. 한편으로 왕정(王廷)에서의 부패와 무능, 관리들의 방탕함과 관기의 문란, 민의 피폐, 그리고 10여년래의 남부지방의 농민폭동 등은 그의 사회·국가의식을 크게 촉발하였으며, 이때에 <동명왕편 東明王篇>·<개원천보영사시 開元天寶詠史詩> 등을 지었다. 혜문(惠文)·총수좌(聰首座)·전이지(全履之)·박환고(朴還古)·윤세유(尹世儒) 등과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

1197년 조영인(趙永仁)·임유·최선(崔詵) 등 최충헌(崔忠獻) 정권의 요직자들에게 구관(求官)이 서신을 썼다. 거기에서는 그동안 진출이 막혔던 문사들이 적지않게 등용된 반면 그는 어릴 때부터 문학에 조예를 쌓아왔음에도 30세에 이르기까지 불우하게 있음을 통탄하고 일개 지방관리로라도 취관시켜줄 것을 진정하였다. 이 갈망은 32세 때 최충헌의 초청시회(招請詩會)에서 그를 국가적인 대공자로서 칭송시를 읊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사록겸장서기(史錄兼掌書記)로서 전주목에 부임하였으나 봉록액수가 적고 행정잡무가 번거로우며 상관이나 부하는 태만하고 동료는 그를 중상하는 등 그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또 동료들의 비방에 의해 1년 4개월 만에 면관되었다. 그는 처음 자조(自嘲)를 하다가 다음은 체념하고 결국 타율적으로 규제받는 것을 숙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202년 동경(東京)과 청도 운문산(雲門山) 일대의 농민폭동진압군의 수제원(修製員)으로 자원종군하였다. 현지에서는

각종 재초제문(齋醮祭文)과 격문(檄文), 그리고 상관에의 건의문 등을 썼다. 1년 3개월 만에 귀경하였을 때는 행상(行賞)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좌절감을 알게 된 그는 문필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자부심이 컸었던 데에 대하여 특히 자괴하였다.

1207(희종 3) 이인로(李仁老)·이공로(李公老)·이윤보(李允甫)·김양경(金良鏡)·김군수(金君綬) 등과 겨루었던 <모정기 茅亭記>가 최충헌을 대단히 만족하게 하여 직한림(直翰林)에 권보(權補)되었다. 그리하여 문필을 통한 양명과 관위상의 현달이 일체적일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자신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215년 드디어 우정언(종8품) 지제고(知制誥)로서 참관(參官)이 되었다. 이때부터 출세에 있어서 동료문사들과 보조를 같이하게 되었고 쾌적한 문관생활을 만끽하게 되었다. 금의(琴儀)를 두수(頭首)로 하여 유승단(兪升坦)·이인로·진화·유충기(劉沖基)·민광균(閔光鈞), 그리고 김양겸 등과 문풍(文風)의 성황을 구가한 것은 이즈음의 일이다. 1217년(고종 4) 2월 우사간이 되자 출세의 순조로움에 숙망이 차차 충족되는 것 같았고 관리로서의 행복감에 젖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 가을 최충헌의 한 논단(論壇)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부하의 무고로 인하여 정직당하고 그 3개월 뒤에는 좌사간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집무상과오를 범한 것으로 단정, 좌사간마저 면직되었다. 이러한 돌변사태는 그때까지

전통적인 왕조적 규범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태도를 관리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관념이 최충헌의 권력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파탄되어 버리자 또다시 자신의 사고(思考)와 태도를 바꾸어 보신(保身)에 특별히 마음을 두게 되었다.

1219년 최이(崔怡)의 각별한 후견 덕분에 중벌은 면하게 되어 계양도호부부사 병마검할(桂陽都護府副使兵馬黔轄)로 부임하였다. 만 1년간의 재임중, 박봉인 데다 직장환경은 열악하고 민의 생활모습은 추하고 참혹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등 이곳으로부터 일각이라도 빨리 달아나고 싶어 하였다. 중앙에서의 풍족하고 쾌적하던 문관생활이 그림기만 하였다. 그는 경륜가(經綸家)가 못됨을 자처한 셈이다. 다음해 최충헌의 사망에 따라 집권한 최이에 의하여 귀경하게 된 이규보는 이제 최이에의 절대적 공순관계(絶對的恭順關係)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일체의 주견을 가짐이 없이 다만 문필기예의 소유자로서 최씨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 그것만이 택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뒤 만 10년간은 최씨정권의 흥륭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고관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기간이기도 하다. 보문 각대제 지제고(寶文閣待制知制誥)·태복소경(太僕少卿)·장작감(將作監)·한림학사(翰林學士侍講學士)·국자제주(國子祭酒) 등을 차례로 역임한 뒤 1228년 중산대부 관

위위사(中散大夫判衛尉事)에 이르렀고 동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1230년 한 사건에 휘말려 문죄되어 위도(鰲島)에 유적되었다. 그는 이때까지 권력에 심신을 다 맡겨왔던 터였는데 자기를 배제하는 엄연한 별개의 힘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새롭게 놀랐다. 보신을 잘 못하는 자신이 부덕한 사람으로 통감되었다. 8개월 만에 위도에서 풀려나와 이해 9월부터 산관(散官)으로 있으면서 몽고에 대한 국서의 작성을 전담하였는데, 국서는 최씨의 정권보전책으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규보는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한 셈이다. 65세 때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實文閣學士慶成府右詹事制誥)로 복직되었고, 1237년 수태보문시랑평장사(守太保門侍郎平章事)·수문전대학사(守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禮部事翰林院事太子大保)로서 치사(致仕)함에 이르러 그는 문관으로서의 전생애가 훌륭하게 완결되었음을 자인하고 승리감에 잠긴다. 이로써 자손들은 그의 음덕으로 장차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것이며 관운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71세 이후 하천단(河千仞)·이수(李需) 및 승통(僧統) 수기(守其)와 깊이 사귀었고, 최씨의 문객인 김창(金敞)·이인식(李仁植)·박환(朴暄)과도 교제가 잦았다. 만년의 그는 몸의 허약함과 반록(半祿)의 두절 등에 불편을 느꼈으나 이 점은 최이의 특별한

가호를 받았다. 또한, 몽고의 침략에 대하여 괴로워 하였으나 결국 불평 이상의 것이 못되었다. 몸져 누워 있는 그에게 감격적이었던 것은 최이에 의하여 그의 문집이 발간될 수 있다는 일이었다. 문필로서 양명하고 관리로서 현달하고 그의 문집이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생애의 기본목적은 달성된 셈이었다. 최이에 바쳐진 그의 시들이 최이의 은의에 대하여 충심에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문한(文翰)의 관직자이며, 양심적이나 소심한 사람이었다. 학식은 풍부하나 그 작품들은 깊이 생각한 끝에 나타낸 자기표현은 아니었으며 그때그때 의식에 떠오르는 바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본질상 입신출세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였다. 그가 이러한 사람이 된 근본이유는 그의 가문을 올려세우고 그의 고유의 문명을 크게 떨치고자 하는 명에 심에서였다. 그러나 이규보는 최씨정권 하 일반 문한직 관리층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것이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있다.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河西集, 破閑集, 梅湖集, 補閑集, 英雄敘事詩-東明王-(張德順, 人文科學 5, 1960), 高麗中期的民族敘事詩(李佑成, 成均館大學校論文集7, 1963. 李奎報의 東明王篇詩(朴菴熙, 歷史教育11·12合輯, 1969).

▶ 한국 초대소설가 협회장

유주현(柳周鉉) 1921 ~ 1982. 소설가. 호는 묵사(默史). 경기도 여주출신. 1944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전문부문과를 수학하고 귀국하여 창작활동을 하였다. 1948년 《백민(白民)》지에 〈번요(煩擾)의 거리〉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하였다. 1949년에 《백민》의 편집동인이 되고, 1950년에는 국방부 편집실에 근무하였다. 6.25 당시에 공군본부 종군작가단에 참가하여 《창공(蒼空)》의 편집간사가 되었다. 이어 《신태양(新太陽)》지의 창간에 참여하여 그 주간을 역임하고, 한국펜클럽회원이 되었다. 그의 주요 작품은 1950년 2월 《백민》에 실린 〈군상(群像)〉을 비롯하여, 〈슬픈인연〉(1951) · 〈춘수(春愁)〉(1952) · 〈패배자〉(1953) · 〈광상(狂想)의 장(章)〉(1953) · 〈패륜아(悖倫兒)〉(1956) · 〈장씨일가(張氏一家)〉(1959) 등으로 삶에 내재한 모순을 묘사하여 그 어긋난 사실을 드러



유 주 현 <동아일보사 제공>

내고 도덕적 시련을 문제화 하였다. <패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애인 윤애와의 관계, 계모와 아들과의 관계가 애욕으로 얽혀지면서 삶에 내재한 인간의 부조리한 욕망이 묘사되고 있다. 극복하려는 의지와 그 한계적 질곡이 제시된 작품으로 하나의 문제작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난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로는 <태양의 유산> (1957) · <언덕을 향하여> (1958) · <임진강> (1967) 등이 있다. <신의 눈초리> (1976), 그리고 중편 <죽음이 보이는 안경(眼鏡)> (1977)은 운명인식이 다루어지고 있다. 장편으로는 <조선총독부> (1964) · <대원군> (1965) · <통곡> (1969) · <대한제국> (1969) · <황녀(皇女)> (1972) 등이 있으며, 1973년 신태양사에서 《유주현역사소설대전집》을 간행하였다. 단편집으로는 《자매계보(姊妹系譜)》 (1953) · 《태양의 유산》 (1958) · 《장씨일가》 (1959) · 《신의 눈초리》 (1977) · 《죽음이 보이는 안경》 (1980) 등이 있다. <언덕을 향하여>로 제6회 자유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1968년에는 제8회 한국출판문화상, 그리고 1976년에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다. 후기의 역사소설들은 우리의 지난 시대를 비판적 안목으로 재구성하여 민족의 위기, 일제의 탄압, 한말의 사회정황, 의인들의 희생 등을 간결하고 명쾌한 필치로 재조명하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그의 대표적인 역작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여주출생 독립운동가

**김용식(金用植)** 1885. 9. 10 - 1981. 1. 28)

金用植은(이명 : 仁瓚) 경기도 驪州 川松里 사람이다. 1919년 4월3일 북내면 천송리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神勒寺의 僧侶로서 3월1일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여주읍 내를 향하여 행진하던 중 도중에서 많은 군중이 가세하여 시위 군중은 2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는 남한강가에 이르자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선창하는 등 독립만세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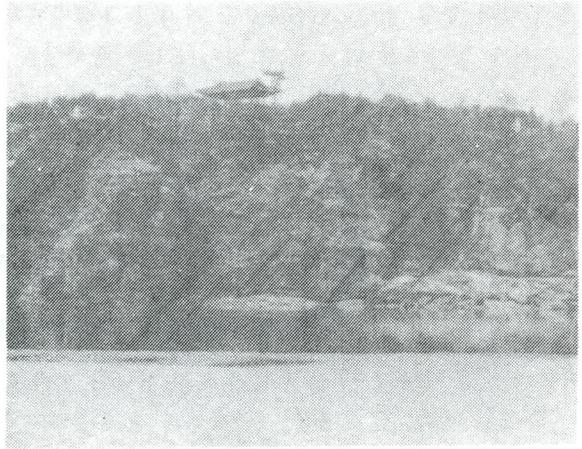
# 내고장의 전설



## ○ 馬巖의 傳說 ○

아득한 黃驪벌에 슬한 人傑의 자취  
너울지고, 峽谷진 산여울 갈피마다  
옛 風情이 脈脈히 어린 傳說을 간직  
한 驪州동국여지승람, 徐居正의 紀文  
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驪江물은 月嶽에서 근원하여 獺川  
과 합하여 金灘 되고 仰巖을 거쳐  
水와 만나 달려 흐르며 점점 넓어져  
驪江이 되었다.」 물결이 맴돌아 세  
며, 맑고 환하여 사랑할 만하다. 江



〈마암〉

西쪽에 馬巖이 있는데 크고 넓고 높고 험하며 기이하고 뛰어났다. 물은 맑아서 黃驪  
一州가 크게 힘입었다. 이 바위의 이름은 이로해서 났다」 하였다.

영월루 樓閣 아래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 괴이하게 생긴 바위가 바로 馬巖이라고 하  
는데 이 마암 근처에는 巖穴이 있어 그곳에서 驪興閔氏의 始祖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口傳되는 곳이기도 하다.

아몽든 驪州는 옛부터 경치가 좋아 詩人墨客들이 즐겨 찾아 詩를 읊조린 곳이다.  
그중 절승지로 이름난 馬巖에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한 漁翁이 여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낚시를 물에 담그고 물 건너  
편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런데 멀리서 손짓하  
며 달려오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다급한듯 사공을 부르고 있었  
다. 마침 사공이 없던 터라 어옹은 낚시를 거두고 배에 올랐다. 강을 반쯤 건넌을때  
여인의 비명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뒷쪽에서 험상궂은 사나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였다. 어옹이 재빠르게 건너가 그녀를 배에 태우려 할 때 뇌성벽력이 치며 바람  
이 불었다. 그와 함께 어디서인지 누런 말과 검은 말이 나타났다. 여인은 재빠르게 黃  
馬에 오르고 뒤이어 달려온 사나이는 驪馬에 올랐다. 하늘은 자욱한 물보라가 일고  
어옹은 흔들리는 배를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잠시 후 바람은 멎고 물결이 가라앉자

그 광경에 놀란 어룡은 말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니 여인과 사나이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바위의 자태만이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이때부터 그 바위를 黃馬와 驪馬가 나왔다 하여 馬巖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 고장의 地名도 黃驪라고 불렀다고 한다. 고려말 黃驪出身의 文豪 李奎報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雙馬雄奇出水涯，縣名從此得黃驪  
詩人好古煩徵詰，來往漁翁豈自知

## ㉠ 한새울과 소슬묘 ㉠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에 가면 한새울이라는 곳이 있다. 또 여기에는 주민들에 의하여 왕무덤 또는 소슬묘라고 불리어지는 묘소가 있는데 이것은 열녀 尹부인의 무덤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여지고 있다.

옛날 무송 윤판서라는 분이 지금의 대신면 보통리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이 마을 앞을 지나자 갑자기 그가 탄 말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윤판서는 수행원에게 이르기를 「말이 움직이지를 않으니 요사스런 일이로구나. 혹시 이 고을에 이상한 것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여라」 하였다.

수행원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이상한 것은 없고 다만 멀지 않은 곳의 한 골짜기에 수많은 황새 떼가 모여 주위를 빙빙돌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와서 윤판서에게 고하기를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이상한 일은 없사옵고 다만 저 골짜기에 수많은 황새한 떼가 모여서 주위를 빙빙돌고 있습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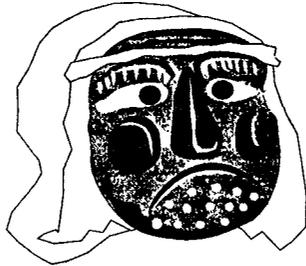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윤판서는 그곳으로 가보니 아담한 기와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주위에서 황새떼들이 맴돌고 있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집은 쓸만한데 사람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제까지 수없이 맴돌던 황새떼도 사라지고 이미 날은 저물었는데다가 보아하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지 않으므로 윤대감은 이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길에 오른 윤대감으로서는 특별히 갈만한 곳도 없는데다가, 주변 산세가 아름답고 집도 쓸만하였으므로 연원히 이집에 정착해버렸다. 윤판서가 이집에 정착한 후로 모든일이 마음과 뜻같이 이루어졌으며 생활도 유복해져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었다. 윤대감은 4형제의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위로 두 딸은 명문세도가에 시집을 보냈으나 셋째딸만은 무관인 의성김씨에게 출가했다. 그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셋째딸인 김씨부인의 남편도 전쟁에 종군했으나 전쟁이 끝나고 한동안 이 지나도록 돌아오기는 커녕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부인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천지신명께 빌었으나 그 기도고 헛되이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임진왜란의 전화는 이곳에까지도 미쳐 약탈과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으니, 어느날 윤부인이 마을 앞 샘터(현재 위안동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에서 물을 길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 닥친 왜군들은 윤부인을 붙잡고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힘이 약한 아녀자인지라 완강한 저항도 헛되이 농락을 당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터럽힐 수 없다 하여 왜놈의 칼을 뽑아 더러운 손으로 만진 자기의 젖가슴을 도려내고 자결하니 이 샘터에는 그 때 흘린 윤부인의 피자국이 얼마전까지도 남아 있었다 한다.

윤씨 부인이 죽자 그의 시신을 거두어 샘터 바로 위의 동산에 묻었으니 그 후 윤씨 부인을 열녀라 했다. 그 후 자손들이 묘를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안동 노인들에 의하면 윤씨부인의 묘를 왕무덤 또는 「소슬묘」라고 하는데 이는 장마 때 묘터에 물기가 있어 땅이 축축할 때 모옆에 소를 매어 놓으면 소 발자국이 뚜렷이 나타나 있으나 다음날 그 자리에 가보면 소 발자국이 없어지므로 이는 땅이 솟아오르기 때문이라 하여 「소슬묘」라 한다. 그 후부터 이 무덤을 가리켜 「소슬묘」, 「왕무덤」 또는 「열녀무덤」이라고 불리워 왔다.

# 전통놀이



# ○ 踏橋놀이 ○

## 1. 踏橋놀이 關한 考察

### (1) 踏橋놀이의 意義

長安何喧喧 今夜踏橋遊

月出大道上 歌吹自相求

장안이 왠지 소란스러운가 했더니

오늘밤 담교놀이를 하는구나

큰길위에 달이 떠오르니

노래와 부는 소리가 저절로 흥겹구나



〈여주 원부리 담교놀이〉

金昌業의 老稼齊集에 나오는 踏橋曲이다. 踏橋

놀이란 다리 밟기를 말함이다. 어떤 형태의 다리이든 그 다리를 밟음으로써 1年の厄을 막는다는 우리 나라의 巫俗信仰의 面을 볼 수 있는 민속이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이 踏橋놀이도 다리 밟기를 함으로써 1年の 액을 방지할 수 있다는 무속적 사고에서 발생한 민속이다.

또한 이 踏橋놀이는 다리를 밟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때 다리[橋]와 다리[脚]와는 같은 音으로 나타난다. 하기에 이 다리를 밟음으로써 인체중에 제일 귀중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다리[脚]의 健康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겨우내 활동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正月 보름날 밤에 마음껏 다리를 밟고 걸음으로써 건강에 좋다는 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점이다. 그것이 무속적인 방법으로 액을 막기 위한 의식으로 연회되었건, 아니면 다리의 健康을 위해서 다리[橋]를 밟았건간에 우리의 민속문화의 다양함과 선인들의 예지를 찾을 수 있는 貴重한 민속놀이 임에는 틀림없으며 더욱이 다리밟기를 密閉된 社會 高麗朝나 李朝初의 女子들이 이날만은 밖으로 나와 뭇사람들 틈에서 마음껏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민족의 여유 또한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민속이다.

## (2) 由來 및 分布

踏橋놀이의 由來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芝峯類說에는 보름날밤 踏橋의 놀이는 前朝(高麗朝를 말함)서부터 시작했다고 적고있어 다리밟기가 高麗때부터 傳해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더욱 中國의 靈異錄에 나타나있는 踏橋놀이에 關한 문구를 조사해 보면, 唐나라에서 正月 보름날밤을 中心으로한 前後 3日을 저녁에 夜行토록 했더니 남녀들이 놀러다니는 차마가 길을메웠다고 했고 北京歲華記에는 正月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나와서 다리를 거닐었다고 하여 婦女子들이 正月 보름날을 기해서 1年の 안녕을 기원한 것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帝京景物略에는 正月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서로 이끌고 나와 거닐므로서 疾病을 없애는 것을 走百病(모든病을 물리침)이라고 한다고 했고 宛書雜記에는 16일밤 婦女子들이 떼를 지어 노는데 대개가 다리가 있는 곳에서 놀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위를 거닐었다. 이것이 度厄(액막이)이다라고 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風俗, 踏橋의 연원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京都雜誌(柳得恭書)와 冽陽歲時記(金邁淳著)에도 보이고 있다. 생각하건대 이 踏橋놀이는 事大夫로부터 庶民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했으며 서울등지에서는 14일밤에 庶民層을 피하려는 上流層 사람들이 踏橋놀이에 와서 이것을 「兩班踏橋」라 하였다. 이렇듯 이 踏橋놀이는 上下의 계급이 다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였으며 우리 민속이 주로 庶民層이 念出해낸 庶民의 놀이였음에 비해 有一하게 常班의 구별없이 즐기는 놀이라는 점이다. 또한 朝鮮王朝 특히 太宗以後에는 觀燈놀이보다도 더 盛行했으며 서울지역이 더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踏橋놀이의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의 수포교가 제일 많은 인파가 붐비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량진, 살곶이 다리, 마포, 아현, 장안리, 몽촌, 돌말(石村) 利川, 驪州, 楊平, 廣州, 忠淸北道 忠州等地에서 演戲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百餘年前에 중단되고 서울 송파와 몽촌 두곳만이 60여년 전까지 행해지다가 그나마 李朝의 殘影이 사그라질 무렵인 1925年 부터는 完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 최근 송파에서 산대놀이 演戲者들이 主軸이 되어 再演이 되었다.

### (3) 다리밟기의 形態

서울지방은 남자만이 踏橋놀이를 하는데 이 踏橋놀이를 서울안의 모든 다리에서 이루어졌으며 한때 踏橋놀이는 男子만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內容을 調査하면 이수광의 芝峯類說에 「大平時에는 踏橋놀이가 매우 성하여 남녀들이 줄이 이어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법관들이 부녀자들의 놀이를 금지시켰다. 以後의 民俗에는 부녀자들이 다시 다리를 밟는 일이 없다」고 1980年代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京畿道 廣州에서는 역시 보름날 새옷을 갈아 입고 인근의 다리를 건너고 돌아온다. 부녀들은 飲食을 냇물에 던져 福을 빌기도하고 남자들은 舞童을 서고 農兵隊를 앞세우고 다리위나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즐겁게 지낸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踏橋놀이는 다리[脚]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方法으로 木造 石造로 造形된 탄탄한 다리[橋]를 건넌으로써 1년동안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方法으로 演戲되었으며 이때 다리를 건너는 모습도 地域에 따라 달라 어느곳에서나 12번을 往復하고, 또는 건너는 것을 1회로 치기도하며, 제 나이만큼 건너 홀수일 때는 다리밧으로 건너 오기도 했으며, 햇불을 켜들고 나이만큼 건너도록 불이 꺼지지 않으면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등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踏橋놀이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詩를 읊고 하는 것으로 巫俗性和 娛樂性이 複合된 정취있는 民俗놀이 였다.

## 2. 驪州 元富里 踏橋놀이

驪州邑에서 利川郡 長湖院邑으로 가는 길목에 現 占東面 所在地인 淸安里를 지나서 長湖院 가까운 곳에 元富里라는 곳이 있다. 이 곳에는 南漢江의 支流인 淸溪川을 끼고 오미에 10호, 안말에 26호, 방죽말에 10호, 분토골에 3호 등 모두 80여호의 농가로 조향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있으며 이 부락은 옛부터 農樂놀이 등 歲時風俗이 興했을 뿐 아니라 고장의 지원서(1983年 작고)옹은 열두발 상모는 물론 뛰어난 상쇠의 技倆과 舞童태우기로 인근의 農樂놀이 大會 때마다 이름을 떨친 技藝人으로 나타나 이 고장은 傳統的인 部分에 상당히 活潑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부락은 京畿道와 忠淸北道의 境界를 이루는 위치에 높이 솟은 오갑산 줄기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는 忠淸北道 陰城郡 거곡면에 예속했던 地域으로 이 근처에 元

亨寺라는 寺刹이 있어 부락명을 元里라 하였는데 京畿道로 예속되면서 驪州郡 占東面 分士谷 마을의 分字를 富字로 고쳐서 元富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마을로 들어가는 인구에 淸溪川을 가로 지른 木造다리가 있어 이곳에서 踏橋놀이(踏橋)가 盛行되었다는 것이 1983년 8월 25일 民俗學者인 임권교수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의 지원으로 축제를 겸한 驪州 踏橋놀이가 재연케 되었는데 이 재연된 驪州 踏橋놀이의 人員編成을 보면 많은 問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원래 그 고장의 전통 민속을 再演함에는 考證을 거쳐 原型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 再演된 踏橋놀이의 人員編成은 단순한 視覺的인 形態만을 重示해 그 나타나는 인원이 王, 정승, 궁녀 등 驪州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驪州의 踏橋놀이는 元富里에서 創出되었는바 이 부락은 전형적 촌락으로 기껏해야 지방의 鄉吏가 있음직한 마을에 王이나 정승 등은 걸맞지 않는 編成으로 이러한 것은 地方의 民俗의 保存이 아니고 民俗 自體를 와전시키는 형상으로 이를 한시바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3. 踏橋놀이의 進行過程

踏橋놀이의 進行 方法은 地域에 따라서 差異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再演된 송파 踏橋놀이의 進行 過程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이유는 전해진 이 踏橋놀이 自體가 정해진 놀이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리를 밟으며 거닐고 놀고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풍물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거닐고 선소리에 맞추워 춤을 추고 즐겼다는 이 踏橋놀이가 어떠한 形式에 의해 그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은 當時(踏橋놀이가 演戲되던 當時)로서는 不可能하다. 즉 서로나와서 다리를 밟으며 興에 겨워 제각기 놀았다는 이 놀이가 一定한 順序를 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의 民俗이 거의가 그리 하듯이 進行 方法 역시 최근 재연 과정에서 나타난 進行을 위주로 方法을 정할 수 밖에는 없으며 또한, 현재의 민속놀이가 옛날처럼 몇날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과 어떤 種類의 민속놀이이던 그 試演에서 장소나 시간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는 비교적 이 지역에서 연희되었던 過去의 踏橋놀이에 가까운 형태를 설정해서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1) 달맞이와 햇불놀이

踏橋놀이의 演戲隊 일행은 正月 上元日에 달이 떠 오르면 달맞이를 행한다. 달이 막 솟아 오르기 시작하면 모두들 달을 향하여 「만월이요 만월이요」하고 합성을 지르면서 햇불을 흔들며 환호하고 큰 절을 하면서 그 해의 所願成就를 빌었다. 이때 우리의 歲時風俗에는 정월 보름날 떠오르는 달을 보고 여러가지로 점을 치는 習俗이 있었으니 예를 들어 달빛이 희면 그해는 장마가 질 징조라 했으며 달이 북쪽으로 치우치면 두메가 풍년이 들고 남쪽으로 치우치면 바다의 海産物 豐年이 들 징조라고 했으며 또한 제일 먼저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본 사람은 그 해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총각이 먼저보면 그 해에 장가를 가고, 처녀가 먼저보면 시집을 가며, 산모가 보면 득남하고, 환자가 보면 병이 완쾌한다고 한다. 이렇듯이 달맞이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달집을 태우고 귀불도 놓았다.

## (2) 踏橋놀이

달맞이와 달집태우기가 끝나면 演戲隊 일행은 근처의 다리로 가서 踏橋놀이를 시작한다. 길 鈞악의 가락에 맞추어 다리밟기를 시작하는 놀이로 一行은 風物잡이들을 앞세우고 다리를 밟는 도중 圓舞, 列舞, 個人舞 進行等の 형태로 다리 밟기를 즐겼다.

## (3) 선소리 산타령

踏橋놀이가 進行되는 過程中 演戲隊 일행은 선소리(立場)의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잣은 방아타령에 맞추워 흥을 돋우고 舞童춤 왜장녀의 쾌락적인 춤등을 추며 다리를 왕복하면서 즐기는 巫俗과 娛樂이 합해진 특이한 민속이다.

## (4) 뒷풀이

踏橋놀이를 마친 일행은 보름날의 밝은 달빛 아래서 마음껏 즐기는 뒷풀이를 한다. 이 뒷풀이는 踏橋를 끝낸후에 厄이 消滅되었다는 안도감이 흥을 절정에 오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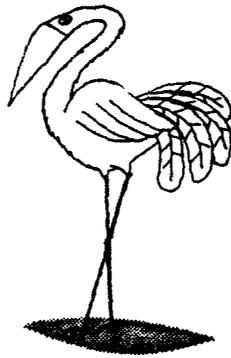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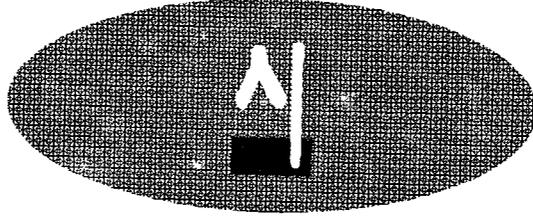
이러한 踏橋놀이의 진행과정은 演戲를 하기위한 方法이지만 원래의 踏橋는 각자가 다리를 밟으며 즐기는 형태의 민속이다.

# 향토문예



이

백



## 신록사에서



### 원 용 문 / 약력

- 「일간문학」 시조 당선
-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 한국문협 여주지부장
- 효제팬클럽 한국본부이사
- 한국시조학회 회장
- 문학박사
- 시조집 <그리움의 미학> 외다수
- 수필집 <선택받지 못한 사람> 외다수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거룩한 뜻 지닌 터에  
신록사는 자리하고

오가는 중생들의  
그 마음 다독여주고

피안에  
넘친 자비는  
여주벌을 이루었다.

누구의 뜻이었을까  
다층석탑 세운 일은

철책도 난간도 닳아  
성긴 무늬만 남았는데

함장한  
가슴에 닿는  
날빛마저 은혜로와라.

이끼끼 솔바람에  
펼쳐지는 남한강물

범선들은 벼랑아래  
연꽃으로 피어나고

어룡(魚龍)이  
꿈틀거리듯  
울부짖는 물보라여.

## 세월이 가는 소리

달이 가는 소리  
해가 가는 소리  
세월이 가는 소리

세월은 그냥 가자고만 하는데  
인생은 하루하루 늙으며 따라간다

할 일은 태산인데  
바쁜걸음 재촉하니  
깊이패인 주름살에  
허리마저 휘는구나.



웅곡 / 김 호 정  
· 경기도 의회 의원

## 長津湖畔雪原에 지다.



### 양암 조 현 / 약력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시집 '남한강 초적' 발간
- 한국서예문화예술상
- 북청군의 노래 작사 당선
- 1천만명 이산가족 수기공모 장원
- 세계시인협회 지도위원
- 여주대학 강사
- 한국 문인협회 회원

砲聲속 눈보라, 무개자를 유린하던 날  
1950년 12월 12일 화요일

나는 한국군 전투원의 일원이었다.  
世界戰史에 아로색인 흥남항의 대탈출  
경건히 美海兵들의 명복을 빌었노라.

意氣冲天 美海兵은 10月말 元山上陸  
鴨綠江을 향해 한걸음에 장진호 진입  
영하 35°의 雪原은 격전전야의 고요속에  
미해병 12,000명 미7사단 미3사단

피리블고 썩과리 북치는 소용돌이 속에  
중공군 10병단 12만명에 의해 포위된 채  
11월 25일부터 10일간의 혈전은 시작

世界戰史에 유례없던 砲彈이 洗禮교환  
그때 그날 눈 속에 떨어지던 송이송이  
오호! 4천의 꽃잎은 붉게 물들이니  
대장부의 눈물을 뿌리던 스미스 소장  
16만 대군의 함성이 메아리 치던 날  
잡신도 울었던 아수라장 장진호여!

결사 脫出의 자동차 1,000대 행렬속에  
미태평양 함대에서 발사하는  
고막이 터질 것 같은 함포의 위용  
동한만의 성난 파도는 함께 울었더라  
그날이 1950년 12월 15일 금요일

평화의 十字軍 세계의 경찰군 American  
당신들의 그 마음 성조기여! 영원하라.  
나의 가슴속에 오늘도 메아리 치누나.  
4천의 전우들아! 永眠하소서 ………  
주여! 장진호의 외로운 영혼을 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시골집 풍경

저녁이면  
잔디밭 사이 사이로  
달빛이 고봉으로 내린다.

장독대 헛배부른 항아리  
그 사이 사이에도  
은 빛살 환하게 고봉으로 비친다.

모감주 나무 위에는  
매미 한 마리 울어대고  
담 옆에 심어놓은  
호박밭 호박잎 사이엔  
지렁이 한 마리 꿈틀거린다

개구리 울음소리  
맹꽁이 울음소리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  
달밤의 시골집 풍경을  
깨소금 볶듯 볶아 낸다.



박 광 태 / 약력

- 여주출생
- 동국대 국문과졸 동대학원졸
- 축협중앙회 감사 및 사료공장  
사업소장 역임
- 「자유문화」시 당선
- 해평시 동인
- 한국문협 여지지부 회원
- 현재 여주문화원 부원장

## 낙 화 암



김 홍 렬 / 약력

- 경기 여주 흥천 장암리 출생
- 문장초등, 이포중, 이천고, 고려대 농경과졸
- 한국 문인협회 회원
- 고려대학교 문인회 회원
- 여주문화원 이사
- 한일은행, 신한은행 근무
- 제11회 허균 문학상 수상
- 저서 : 제1시집 - 세월의 빈 수레에 실려
- 제2시집 - 모닝커피 한 잔에

빨간 꽃보다 더한 열정으로  
맑은 이슬보다 더한 순결로  
강물에 떨어지던 하얀 꽃송이들.

관창의 충절에 무릎을 꿇어  
못난 임금은 왕업의 문을 닫고  
백제를 둘둘말아 백마강에 던졌구나.

고란사 바위틈새 울고있는 고란초야  
백마강을 메우고 부소산을 올리던  
백성의 통곡을 너는 알고 있겠지.

덧칠한 세월로 단청한 고란사에  
홍망과 부귀는 뜬 구름이런만  
무심한 이의 발걸음 바쁘기만 하고너.

## 남과 북 뭉치자

반백년 눈물로 흘러간  
동포들 피의 흐름이여  
남과 북  
부모형제 총뿌리 긴장 속에  
바다같은 눈물의 세월자락  
이마엔 파도치는 주름살  
머리엔 하얀 파도의 거품이여  
어렵게 만나는 순간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헤어져야 할 운명  
기쁨과 슬픔의 교차  
땅도 하늘도  
그날 그때 울었노라  
아직도 시작에 불과  
풀어야 할 우리들의 짐  
평화의 노벨상은  
이천년 첫장에 기록이다.  
철의 장막을 박차고  
대북을 치면서  
새봄으로 달리는  
서광의 빛  
힘차게 뭉치자!  
우리 다시 눈물은  
없어야 한다  
세계로 달리는  
우리도 강대국  
행진뿐이다.



### 이 일 섭 / 약력

- 시와 시론 당선 등단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학과 졸업
-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역임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지부장
- 시집〈내가 부르던 그 이름은 아니었다. 날아가는 새〉 등 다수
- 현대 시인협회 회원 현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문협 경기지회

## 가 면 극



### 정 기 명 / 약력

-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 「문예사조」시 당선
- 「현대시조」시조 당선
- 한국문협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 경인시조시인협회 회원
- 끼리창작 동인회원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회장
- 시집〈여강의 돛을 달고〉 등 다수
- 현재 : 강천중학교 교사

가슴이 터질 듯이  
뒤틀린 모습이어

앞을 가리우고  
아무리 돌아본대도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

비웃음 가득 실은  
얼굴을 묻어놓고

하고픈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면서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가면극의 삶인 거.

## 산속의 소

산골 마을엔  
아직도  
山田 밭을 갈고  
등위 질마엔  
무거운 짐 나르는데  
더 빨리 안간다고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려도  
말없이 제 갈길을  
가는 소  
아무리 짐승이지만  
너무 심한 것 같구려  
하지만  
어떤 이는  
달구지에 짐을 싣고  
주인도 짐을 지게에 나눠지고  
뒤따라 가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구려



강 태 희 / 약력

- 「교단문학, 아동문예, 아동문학」 동화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지부장
- 한국아동문학회 경기지회장
- 한국아동문학회 작가상 수상
- 여주초등학교 교장 역임
- 저서〈동화집 : 천사의 얼굴 등 6권〉  
〈동요집 : 일곱색 무지개〉 등 다수

## 회상 (廻想)



홍 은 숙 / 약력

· 순수문학 등단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옛날의 저곳은 아카시아 숲이었었지  
일 속에 파묻혔다 문득 감미로운 향기에  
고개 들어 보면 그래! 어느새 연록색 오월이  
내 앞에 서 있었어  
해마다 그렇게 봄이 왔었지.

그 눈부신 햇살속에 눈 내리듯 쏟아지던 하얀 꽃잎과  
향기라니 ……  
겨울내 침잠되었던 감성들이 한꺼번에 깨어나  
폭죽처럼 터지는 느낌이었지.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가만히 눈감으면  
내 자신이 어디론가 먼곳으로 사라질것만 같았어  
푸른 숲속에 한 그루 나무였다가  
하얀 꽃잎에 머문 한 마리 고운 나비였다가  
한 줄기 가늘 가늘한 향기였다가  
나는 그렇게 아카시아 짙에 취해 봄을 보냈어.

감동으로 목이 메이던 봄날이면  
정말 미운 사람들, 거짓말들, 위선들, 더러움들 ……  
다 잊고 떨쳐 버리고  
짜증스런 일상들 바쁨들 억울함들 아쉬움들  
다 잊고 다 던져 버리고  
나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향기이고 싶었어.

이제 저곳은 빌딩 숲이 되었어  
아카시아 꽃잎대신 창문마다 펄럭이는 빨래들  
먼지들 소음들 부산스러움들이 날아와.

강가에 앉아  
햇살이 물결을 타고  
도란 도란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

저토록 다정한 모습으로  
저토록 눈부신 대화를 나눌수만 있다면,

수만가지 언어를 가지고도  
변명밖에 할 줄 모르는  
수만가지 수식어를 가지고도  
이해의 단절을 느끼며 사는 우리는

따스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햇살이 부럽다.  
조용 조용 속삭일줄 아는 강물이 부럽다.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대화  
폭력과 악의 도구로만 남용되는 우리의 언어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언어

흐르는 것이 어디 강물 뿐이라.  
나를 흘러간 수많은 일상들  
수많은 세월들이  
상처지고 얼룩진채로 흘러간 삶의 흔적 또한,  
서러움의 강물이 아니던가?

따스한 대화 하나로  
진실한 위로 하나로  
삶의 고통 삶의 힘듦 모두 잊을 수 있으려면만

무심한 강물은 그지없이 평화로운데  
내 마음은 외로움으로 절절하구나.

## 문화원 창립기념일에 부쳐



김 정 인 / 약력

- 「문예사조」시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 현재 : 금강유리 근무

백두대간의 푸른기운  
북성 혈에서 열리었고  
한양골 적시는 젖 줄  
여강에서 이였나니  
물소리는 깊어서 하늘에 닿고  
바람소리 높아서 청아도 하다.  
드높은 조상의 얼  
골마다 유적이요  
백성이 지혜로 와  
들녘은 기름지고  
뜻은 하늘을 고였으니  
슬기는 터울을 이었어라.  
  
동녘의 높은 누대  
시인묵객 영월루야  
정갈한 쇠북소리  
신록산사의 기품이여!  
울곧도다 민비여!  
세종의 유산이여!  
고집스런 도가후예  
이땅이 도공의 본산이라.  
아!  
넘치는 지혜의 氣  
인걸의 후손이여  
세세토록 하늘의 축수하심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어짐 이시로다.

# 투 랭 이

어김없이 창밖에 눈이 내린다

가난한 세월  
이미 가버린 시간  
아버님의 사설이면  
허영 같지만 잊고 싶다

막내의 딸 아이  
갓 돌 지난 13개월  
외손녀 서진이  
할배언어 따라 배운다

아버지 와 나  
그렇게 서먹해도  
서진이 할배 언어가  
꽃잎의 언어다

서진이가 투랭이 하면  
이삼일 지나  
어김없이 눈이나 비가 온다

오늘도 어김없이  
달님을 가리우고  
창밖에 눈이 내린다



박 찬 수 / 약력

- 「월간문예시조」시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 사무국장
- 경기동부신문 객원 논설위원
- 현재 : 여주동중 교사

## 아 침 에



임 춘 봉 / 약력

- 순수문학 추천 등단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자신을 감금시킨 욕심들로  
하루의 소음이 시작된다  
바쁘다는 핑계도 저녁쯤에는 없을 일이다

물음표 하나

오늘은 무엇을 쫓아가야  
내가 나로 설 수 있을까

가끔은 목상중에 어리석은 잡념으로도  
소중한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때가 있다  
오늘이 시작됨을 잊지 않으려  
자신에게 당당해진다

가끔은

늦잠을 자다가 이런날을 맞이한다.

# 수필



## 채 칼

김장을 하려면 생채(生菜 : 무우 채)가 필수고 생채를 만들려면 채칼이 있어야 한다.

무우를 가늘게 썰어 갖은 양념을 버무리 배추 포기 에 듬성듬성 넣어 담그는 김장 중 가장 어려운 일이 생채를 만드는 일이다. 생채를 만들기 위하여 밤새워 도마 위에 무우를 썰어야 하는 여인들에게 채칼의 발명은 가히 혁명적이며, 채칼을 처음 만든 사람이 특허를 냈다면 페돈을 벌었을 것이다.

무우 굵기 2배만한 송판을 대패질로 곱게 다듬어 어린애 손바닥만큼 오려내고, 생철을 붙여 대못으로 구멍을 내어 쓰던 것이, 6.25사변으로 미군이 주둔해 통조림 깡통이 지천으로 나뒹굴 때일 것이다. 남쪽불로 밤을 밝히던 늦가을, 목수 아저씨가 채칼을 들고 자랑스럽게 우리 집을 찾던 날이 내 나이 아홉살 때이니까.

김장 준비로 채를 썬다.

채칼은 간단 명료하다. 플라스틱 판 위에 알루미늄 칼날이 예리하게 4mm의 높이로 붙여지고, 4mm x mm4의 공간을 에워싸는 9개의 날카로운 구멍. 군더더기가 배제된 오로지 16mm<sup>2</sup>만을 통과시키는 칼.

초창기의 것은 너무 많은 구멍과 시원찮은 날로 마찰력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생채가 가늘고 잘 끊졌으며,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아 뜯어내기까지 했다.

무우를 채칼에 미니, 칼날에 스텝 때마다 채가 굵직굵직하게 쏟아진다.

인류는 필요보다 편리를 찾아 발전하며, 가재도구의 변화는 여성들을 노동에서 해



이 상 국 / 약력

- 제2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필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 현재 : 여주군청 근무

방시킨다. 부지깽이로 밥을 짓던 아내가 자가용 오너 드라이버가 될 줄 누가 알았으  
라. 부엌이 안방으로 들러오고, 냉장고와 세탁기가 반찬 걱정과 찬물의 시린 손을 잊  
게 했으며, 가스버너와 밥솥이 TV를 보며 음식을 장만한다.

생채의 굵기가 작년보다 굵어졌다. 이 굵기는 칼로 썰 때의 가장 적당한 선으로 처  
음 김치 맛을 보던 때의 굵기일 것이다. 우리 문화는 각진 음식문화로 동치미, 깍두  
기, 인절미, 모두 사각이다. 잉태한 여인에겐 반듯하지 않은 음식은 손도 못 대게 한  
일도 있으니까.

국수도 마찬가지로. 원래 국수는 칼로 썰어서 만들어 먹던 음식인데 국수를 구멍을  
비집고 나오면서 잔치 국수가 생겨났고, 반죽과 국수를 밀어 썰던 노동을 해소한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은 어느새 미각의 향수를 찾아 칼국수를 선호한다. 김영삼 대통  
령의 칼국수가 검소한 생활의 본이 되어 찾다가, 전날 밤 숙취를 푸는 해장국 대신 찾  
는 것이 칼국수다. 이처럼 생채의 굵기도 향수를 찾아 굵어진다.

4시간은 족히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만에 끝났다. 예리한 대각선과 날카로운 9개  
의 칼날 구멍이 해결한 것이다.

온갖 세상사 채칼 위에 올려놓고 밀었으면.

IMF와 정국의 불안정, 끊임 줄 모르는 구조조정, 노사분규, 금융사고, 어디 하나  
시원한 게 없다. 그뿐이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불협화음. 인터넷에 들어가면 영어  
에 기가 죽어 쭈뼛거리고, 컴퓨터를 장만할치라면 돈이 없고, 책을 읽자고 안경을 찾  
아 들면 불빛이 어둡고, 불빛을 밝히면 어느 틈에 안경이 보이지 않는다. TV를 보자  
니, 텔런트와 가수, 코미디언들의 말 잔치가 울적한 기분에 짜증까지 부추긴다.

세상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부도난 벤처기업 사장이 유학 중인 딸의 항공료로 은행  
돈을 훔치고, 여자 파출소 서장의 불륜을 참다못한 딸이 인터넷에 어미를 고발한다.  
“쓸만한 땅은 도로로, 쓸만한 계집은 다방으로”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주위는 불만  
투성이다.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못 견디게 싫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거  
기 맞장구치는 사람들. 사촌 땅 사는 것을 배 아파한다는 속담을 누가 만들었을까.

신년이다. 올해는 채칼에 무우 지나듯 시원시원했으면.

## 再 會

이 장 호

천년제국의 고도(古都) 경주를 찾은 날은 영하 10여도 가까운 추운 날 이었다. 도로 가장자리의 눈은 이미 얼음으로 변하여 가끔씩 신경을 곤두서게 하였지만 예정된 시각에 도착할 수 있었다.

늦은 밤에 도착한 탓인지 거리는 한산하였고, 식당을 찾아 늦은 저녁식사를 하는 손님도 우리 가족뿐이다.

흘러간 노래처럼 '신라의 달밤'은 아니지만 동동주와 함께하는 신라의 겨울밤 풍경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다.

관광수익증대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관광단지보다 옛터에 자리잡은 구옥(舊屋)을 개조한 주막에서 옛사람 냄새를 맡는 것은 건 오감의 기능 때문은 아니리라.

경주는 나에게 있어 몇 가지 최초의 경험이라는 기억의 끄트머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내륙지방에서 태어난 순전한 촌놈이 최초로 가차를 타본 것은 경주 수학여행 이었다. 그 긴 시간을 가면서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낮선 지방의 풍경에 신기해하던 열다섯 살의 중학시절.

중학교 수학여행은 태어난 곳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도시이며(물론 몇 년 후에 깨어진 기록), 옛 것에 대한 경외감을 배웠으며,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는 첫 사랑을 열병을 시작한 곳이다.

내 딸아이도 가끔은 남자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오고, 나도 딸아이의 남자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거들고 있지만, 우리 때야 부모님은 고사하고 친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렵던 때였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소문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 되던 그런 시절에 유행가 가사처럼 ‘단발머리 그 소녀’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 도시가 바로 경주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해돋이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토함산을 올랐다. 그 옛날 걸어서 오르던 산을 이제는 자동차로 10여분이면 오를 수 있었다.

날씨가 흐려서 그림엽서에서 보던 장엄한 해돋이를 볼 수 없어 햇살이 구름사이로 간간히 보여주는 모습으로 만족해야 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주차장에서 석굴암에 이르는 길은 황톳길로 옛날의 추억을 찾아네고픈 여행자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가장 아름다운 대비 2로 웃으신다는 석굴암 부처님은 이제 잘 지어진 전각에 유리창 너머로만 사바대중을 맞이하고 계셨다.

수학적으로 완전하다는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미소가 유리창 너머 미련한 중생에겐 쓸쓸함과 함께 전해지는 것은 날씨 탓일까, 사람 탓일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국사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예전에는 스쳐 지났던 불국사의 긴 회랑에서도 남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다보탑 석가탑을 돌면서 남 모를 기원도 해본다.

25년 전 나의 단발머리 소녀는 이제 그때 자기 나이의 커트머리 소녀와 함께 석가탑 앞에서 있고, 까까머리 소년은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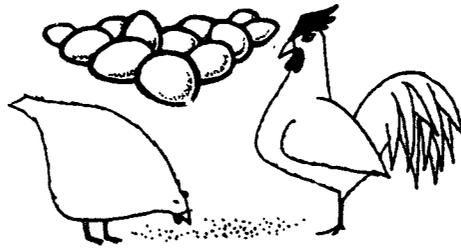
단발머리 소녀는 “그 때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묻고 까까머리 소년은 “같이 사진을 찍고 싶었다” 대답하고 커트머리 소녀는 두 사람을 사진에 담는다.

커트머리 소녀의 “아빠, 엄마랑 같이 찍자고 그래보지 그랬어” 한 마디에 이미 훌쩍 사라버린 까까머리 소년과 단발머리 소녀는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를 흉내내고, 25년만의 재회는 그렇게 그렇게 지나간다.

이

백

치자동화  
0-70회



## 검은 소와 누런 소

강 태 희

깊은 산골 마을에 검은 소와 누런 소가 시냇가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검은 소야! 내일부터 서쪽에서 해가 뜨려나 보다. 눈코 뜰 새 없이 이 바쁜 가을철에 쉬는 날이 다 있구나!”

누런 소는 검은 소를 보자마자 농담 섞인 말을 걸었습니다.

“에이, 누런 소도 남말하듯 하네. 이 한참 바쁠 때 어떻게 쉬게 되었는데, 응?”

검은 소도 되받아 물었습니다.

“글쎄말여, 오늘같이 좋은 날이 자꾸만 생겨서 쉬는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단다.”

누런 소는 밀도 끝도 없는 좋은 일이 생겨서 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날이라니 어떤 날이 좋은 날인데, 날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검은 소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날이란 쉬는 날이란다. 우리 주인의 손녀네 학교 가을 운동회날이라서 온 가족들이 모두 운동회 구경을 갔기 때문에 쉬는 날이 생겼으니 좋은 날이 아니겠니?”

누런 소는 좋은 날이 쉬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누런 소야! 우리 주인의 손자도 가을 운동회날이란다. 어떻게 그렇게도 나와 똑같은 좋은 날이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검은 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난 검은 소가 늘 부러워서 샘이 난단다.”

누런 소는 검은 소가 샘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부럽다고? 무엇이 샘이 나는지 말해 봐.”

검은 소는 의아하여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래. 본 대로 말하지. 네가 달구지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때 너의 주인도 지게에 같이 나눠 지고 뒤따라가는 것이 난 얼마나 부럽고 샘이 나는지 모른다.”

누런 소는 본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래? 누런 소야, 너의 주인은 안 그러니?”

검은 소가 되물었습니다.

“검은 소야, 말도 말아라. 너도 가끔 보았는지 모르지만 짐을 나눠 지고 가기는커녕 달구지에 잔뜩 싣고 끌고 가는 날 빨리 안간다고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리기만 하니 정말 분해서 죽을 지경이란다.”

누런 소는 죽지 못해 끌고 간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딱하구나!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달구지를 끄는 것도 힘이 부치는데 매까지 때리니 정말 가엾구나!”

검은 소는 누런 소가 불쌍하였습니다.

“검은 소야! 나도 너처럼 좋은 주인을 만날 수는 없겠니? 어떻게 하면 좋은 수가 있나 가르쳐다오”.

누런 소는 검은 소에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글쎄, 어디 좋은 수가 생각나야지. 그러면 좋다! 내가 겪은 대로 눈 딱 감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니?”

검은 소는 무슨 수가 생각난 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좋은 수인지 크게 말해 봐. 정말 좋은 수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볼란다.”

누런 소는 그 큰 귀가 더 번쩍 열리는지 두 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한참 바빠서 달구지로 짐도 실어야 하고 산비탈 밭도 갈아야 할 텐데 또 까닭없이 매를 때린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생기니. 알았지?”

검은 소는 해결이란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검은 소야! 어떤 해결 방법인지 좀 자세히 가르쳐다오. 궁금해 죽을 지경이다.”

누런 소는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조바심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말하지. 해결 방법이란 네가 매를 맞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못 일어나는 척하는 것이야! 그러면 계속 매를 때릴 텐데 이때 죽는 한이 있어도 일어나지 말고 끝까지 버틴다면 주인도 지쳐서 매를 놓을 것이야. 저녁 때 겨우 일어나 집으로 가면 해결될 거야. 알았지?”

검은 소는 너무 끔찍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난 어떻게 되는 것인데? 너무 무서워서 말야.”

누런 소는 벌벌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집에 가면 주인도 내일을 생각해서 좋은 먹이를 줄 것인데 이때 입을 딱 다물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한 사흘 동안만 꼭 참고 누워 있으면 사흘째부터는 아무리 가혹한 주인일지라도 반성하는 눈치가 보일 것이다. 그 후 며칠간 다시 잘 먹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시는 매를 때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주인의 버릇을 고치는 거야. 알았지?”

검은 소는 술술 힘 안 들이고 말하였습니다.

“검은 소야, 너는 어떻게 그리 잘 알고 있니? 경험한 적이 있어, 응?”

누런 소는 믿어지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겪은 일이지. 그러니까 지난 봄 농사철 한참 바쁠때 산비탈 밭을 갈다가 너무 힘들어 피를 부렸더니 매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고서 너에게 말한 대로 했지. 알았니?”

검은 소는 실제로 겪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검은 소야, 정말이야? 주저앉아 안 일어나면 또 매를 때일 텐데.”

누런 소는 매가 무서웠습니다.

“누런 소야! 너 매가 그렇게 겁나면 주인 버릇 못 고친다..알아서 해.”검은 소는 툭 소리를 주었습니다.

“검은 소야! 주인 버릇 고치려다 내가 먼저 매맞아 죽는 꼴 아니야?”

누런 소는 매맞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누런 소야! 내가 주인 버릇 고치고야 말았는데 너라고 못하겠니? 너무 겁먹지 말아. 설마 죽도록이야 매를 때리겠니? 한번 굳게 마음 먹고 해보라고, 응?”

검은 소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구슬렸습니다.

가을 해는 산마루에서 숨박꼭질하며 소들의 얘기를 엿듣고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소들은 운동회 구경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따라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은 누런 소는 검은 소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검은 소의 한 말이 믿어지지 않아 잠을 자지 못하다 언뜻 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참고 일한다면 주인도 매를 들이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검은 소의 허황한 거짓말에 속을 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 2001년도 문화원 주요사업계획

사 업 명	기 간
<b>1. 축제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대왕숭모제전</li> <li>· 문화의 축제거리</li> <li>· 세종문화큰잔치</li> <li>· 명성황후 숭모제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5월</p> <p style="text-align: center;">7월 ~ 9월</p> <p style="text-align: center;">10월</p> <p style="text-align: center;">11월 17일</p>
<b>2. 향토고유문화 보존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월대보름 한마당놀이</li> <li>· 조기울 낙화놀이</li> <li>· 취타대 시연</li> <li>·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2월 7일</p> <p style="text-align: center;">2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11월 17일</p> <p style="text-align: center;">2월</p>
<b>3. 지역사회 교육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적답사</li> <li>· 교양강좌 및 문화인의 밤</li> <li>· 청소년 문화학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5월</p> <p style="text-align: center;">4월</p> <p style="text-align: center;">7월</p>
<b>4. 도서발간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주사료집</li> <li>· 여주문화</li> <li>· 학생백일장 입선작 모음집</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연 중</p> <p style="text-align: center;">상반기, 하반기</p> <p style="text-align: center;">10월</p>
<b>5. 기 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공연</li> <li>· 아마추어 연극제</li> <li>· 청소년 민속예술제</li> <li>· 여주문학지</li> <li>· 경기도 문화원 임직원연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하반기</p> <p style="text-align: center;">9월</p> <p style="text-align: center;">10월</p> <p style="text-align: center;">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4월</p>

이

백

# 여주문화

제9호

◇ 인 쇄 : 2001년 6월 25일

◇ 발 행 : 2001년 6월 30일

◇ 발행인 : 한 만 규

◇ 발행처 : 여 주문 화 원

(031) 883-3450

---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